



SOCIETY & VALUES

SNAPSHOT USA

미국의 스냅샷

2006. 6.

미국 국무부 · 국제정보프로그램국

JUNE 2006

U.S. DEPARTMENT OF STATE ·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SOCIETY & VALUES

편집주간(Senior Editor)	George Clack
기고편집진(Contributing Editors)	Mark A. Betka Paul Malamud Chandley McDonald Mildred Neely Robin Yeager
인용전문인(Reference Specialists)	Mary Ann Gamble Anita N. Green Martin Manning Kathy Spiegel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	Tim Brown
사진조사원(Photo Researcher)	Ann Monroe Jacobs
발행인(Publisher)	Judith S. Siegel
편집국장(Executive Editor)	Richard W. Huckaby
제작부장(Production Manager)	Christian Larson
제작차장(Assistant Production Manager)	Chloe D. Ellis
논설위원단(Editorial Board)	Alexander C. Feldman Jeremy F. Curtin Kathleen R. Davis Kara Galles

표지: Comstock Images, Jupiter Images 제공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정보 프로그램국은 ‘e저널 USA’ 제호 아래 미국의 사회, 가치, 사상, 제도 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들을 주제로 총 5종 – Economic Perspectives, Global Issues, Issues of Democracy, Foreign Policy Agenda, Society & Values – 의 온라인 저널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매달 영어로 당월호가 발간되고 2~4주 후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번역판이 제공 됩니다. 필요에 따라 아랍어, 중국어, 기타 언어로 번역 발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저널에 실린 주장이나 의견은 반드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 국무부는 본 저널에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이나 액세스 가능 여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그러한 책임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본 저널에 게재된 기사, 사진, 도표는 저작권 제한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재생산 또는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본 저널에 표시된 해당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최신 호와 지난 호를 비롯해 앞으로 발간 예정인 저널의 목록을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usinfo.state.gov/journals/journals.htm>). 본 저널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거주하시는 국가 주재 미국대사관이나 본지 편집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eJournal USA

IIP/T/Cp

U.S. Department of State

301 4th Street SW

Washington, DC 20547

United States of America

E-mail: iiptcp@state.gov

이번 호에 대한 소개

구글 검색창에 ‘미국’이란 단어를 쳐넣으면 3,370,000,000건의 검색 결과가 스크린에 나타난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관한 한 공개된 정보가 넘쳐 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호 eJournal USA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미국 이외 지역의 젊은 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출판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호의 제목 ‘미국의 스냅샷’은 이런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인들이 조국과 세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포착하여 오늘날 미국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다. 우리는 전세계 독자들이 캘리포니아가 가장 인구가 많은 주라는 사실 뿐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하에서 움직인다는 것, 미국의 젊은이들이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느끼는 감정이 독자 자신의 감정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것, 그밖에도 많은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이번 호 eJournal USA는 학술 서적이 아니라 현재 어느 한 순간의 흥미로운 미국의 단면이자 단어와 사진으로 이루어진 2006년 6월 미국의 콜라주다. 이번 호 eJournal은 ‘나의 미국’이라는 제하의 짧은 에세이 모음으로 문을 연다. 5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해외의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미국의 여러 모습, 특히 세계 각지에서 매일 같이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의 홍수 속에서 간파되었을지 모를 미국의 모습을 풀어 놓는다. 에세이에 담긴 이들의 생각은 놀라운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 ‘우리를 미국인으로 만드는 것들’에서는 케네스 젠다 노스웨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미국 민주주의의 한 열쇠로 다원주의를 꼽는다. 나아가 워싱턴

D.C. 소재 아메리칸대학교의 국제관계학자 게리 위버는 서로 다른 민족집단이 정체성을 잃은 채 뒤섞임을 암시하는 ‘용광로’라는 비유가 사실은 미국사회를 적절히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는 각 부분의 고유한 특징을 중시하는 가운데 더 큰 통일성을 이루는 사회라는 점에서 미국을 모자이크나 태피스트리에 비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성, 기업가정신, 박애주의,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 꿈의 추



자유의 여신상

사진제공: Comstock Images: Jupiter Images

구 등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있는 5명의 동시대 미국인의 자화상이 이 섹션의 마무리를 장식한다. ‘미국의 아이콘’에서는 남다른 업적으로 전세계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32명의 정치인, 민권운동가, 과학자, 기업가, 운동선수, 연예인이 독자와 만난다. 어떤 국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알아야 하므로 미국 역사의 주요 사건 연표도 수록했다. 다음 섹션에서는 미국의 지방을 간략하게 둘러본다. 미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끈질기게 추구한 꿈 중 하나가 바로 광대한 땅 그 자체였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의미 있는 작업이다. 시인 윌트 휘트먼은 1855년 자신의 시선집 ‘풀잎’의 서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미국의 진정한 시인은 그 지리와 자연 생물과 강과 호수를 형상화한다... 긴 대서양 해안과 태평양 해안이 더 길게 뻗어나갈 때... 시인은 또한 동에서 서로 그 해안을 오가며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반영한다.”

편집자



미국의 스냅샷 2006

미국 국무부 / 2006. 6. / 통권 11 권 / 제 2호
<http://usinfo.state.gov/pub/ejournalusa.html>

목 차

나의 미국

5명의 젊은 미국인들이 전세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미국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다.

5 **경계선 밖에 색칠하기**

제클린 모레이스 이즐리가 미국 가정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한다.

7 **공군 이야기**

전직 군인인 코리 런던이 흑인으로 산다는 것과 조국 수호라는 군인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한다.

8 **도시와 꿈**

대학을 갓 졸업한 애슐리 무어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힌다.

9 **신세계**

시카고의 범종교 청소년 단체를 이끌고 있는 에부 파텔이 이슬람계 미국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0 **아메리카의 의미**

곧 대학 신입생이 되는 소설가 켈리 맥윌리엄스가 미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펼쳐 보인다.

11 **숫자로 본 미국인**

우리를 미국인으로 만드는 것들

12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의 정치학 교수 케네스 찬다

저명한 학자로부터 다원주의가 어떻게 미국 민주주의의 열쇠 역할을 하는지 들어 본다.

16 **미국에 관한 FAQ**

18 **미국의 문화적 태피스트리**

워싱턴 DC 아메리칸대학교 국제서비스대학 교수 게리 위버

전문가로부터 미국 문화의 일부 측면에 대한 고찰과 함께 다양한 민족집단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한 해설을 듣는다.

21 **5명의 젊은 미국인**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5명의 동시대 미국인을 소개한다.

24 **미국 기본 통계**

유명한 얼굴과 장소

25 미국의 아이콘

‘아이콘’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은 32명의 정치가, 민권운동가, 과학자, 기업가, 운동선수, 연예인의 사진과 간략한 정보가 소개된다.

36 주요 사건 연표

38 미국 지역 여행

미국에는 각자 독특한 문화를 가진 50개의 주가 있다. 이 기사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역별로 살펴본다.

57 이민자들이 말하는 미국

58 미국의 유명인사들이 남긴 명언

59 인터넷 자료

미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온라인 비디오

미국 각 지역의 비디오 투어

<http://www.usinfo.state.gov/journals/itsv/0606/ijse/ijse0606.htm>

나의 미국

미 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정의하기 위해 건국 초기부터 미국인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성찰은 외부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세계를 일종의 대화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랄프 왈도 에머슨은 1841년 발표한 그의 대표적인 에세이 ‘자립’에서 과거, 특히 유럽에 뿌리를 둔 과거와 대별하여 “자신을 고집하라”, “모방하지 말라”는 말로 이 덕목을 정의한 바 있다.

‘나의 미국’이라는 제하의 본 섹션에서 소개되는 에세이에서도 이와 똑 같은 감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갖고 있고 각기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기혼, 미혼의 젊은이 5명에게 같은 또래의 전세계 독자들에게 미국에 대해 알리고 싶은 것에 대해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 에세이들이 할리우드 영화나 TV 뉴스보다 미국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포괄적인 그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 에세이 중 다수도 내면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세계로 사고를 확장하고 있다. 귀화 미국인인 재클린 모레이스 이즐리는 자기 동네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웃들에 대해 놀라워하면서 딸이 색칠을 할 때 경계선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자신이 반기는 이유를 설명한다. 군인 출신인 코리 런던은 이 나라를 수호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다. 고향인 텍사스를 떠나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인 뉴욕의 잡지사에서 편집인으로 일하는 애슐리 무어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와 텅 빈 냉장고가 ‘아메리칸 드림’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토로한다. 이슬람교도로서 시카고에서 범종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에부 파텔은 이슬람교와 미국의 관용의 전통이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펼친다.

역시 본 섹션에 실린 다른 에세이에서 언급된 “미국 역사의 비극적이고 끔찍한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새내기 대학생 켈리 맥윌리엄스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이 나라를 선택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한다. 그녀는 노예 출신으로 미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 지도자가 된 프레더릭 더글라스를 모델로 삼아, 그가 미국에 머무르며 내부에서 노예제 타파를 위한 정치 투쟁을 벌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제 18세인 켈리는 “미국은 그 국민에 맞추어 만들어지고 또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미국은 그럴 의지가 있다. 미국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나는 미국인일 것이다.”

나의 미국: 경계선 밖에 색칠하기

재클린 모레이스 이즐리

프리랜서 작가인 재클린 이즐리는 남편과 두 딸과 함께 매릴랜드 주 콜럼비아에 살고 있다.



집 뒷마당에서 포즈를 취한 재클린 이즐리와 가족.

당신이 생각하는 오늘날 미국 가정의 얼굴은 어떤가? 큰 키에 군살 없는 체격의 금발 부모와 2.5명의 자녀? 이 가족은 아마도 흰색으로 칠해진 나무 담장과 잘 관리된 잔디밭이 있는 예쁜 집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집 안에는 주방 조리대에 맥도날드 종이봉투가 놓여 있고 냉장고 안에 코카콜라가 있으며 MTV 채널이 배경으로 깔릴 것이다. 물론 이 모습도 미국 가정의 유형 중 하나다. 그리고 1985년 필리핀에 사는 11살 소녀로서 내가 상상했던 미국 가정이 그와 달랐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아시아계발은행에 다니시던 아버지가 어느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이사하게 됐다는 뉴스를 전했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미국에 관한 것 중 내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맥도날드, 코카콜라, MTV가 전부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상징처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멋진 것이 더 많이 있다면, 미국은 얼마나 멋진 곳이겠는가 말이다!

우리 가족은 결국 미국으로 이주했다. 20년이 지났고, 그때보다는 조금 덜 순진하고, 예전처럼 광고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맥도날드의 휠레-오-휘시보다는 초밥을 좋아하고, 코카콜라보다는 좋은 와인 한 병을 더 즐기는 지금의 내가 있다. MTV는 더 이상 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열성적인 팬이라는 것이다.

나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5년 전에야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당시 나는 대학시절에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시카고에서 잠시 일한 후 매릴랜드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대담하고 예쁘고 반항적인 두 여자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요즈음, 나는 내 딸들을 미국에서 기를 수 있다는 사실에 신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시민권을 따던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충성서약을 암송하면서, 뱃속 아이의 발길질과 내가 공식적으로 미국인이 된다는 그 감격스러운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던 그 날을.

5년이 지난 지금, 내 아이들의 앞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들이 안락하고 특혜 받은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내 남편과 나,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부모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순전히 행운이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부부는 인생의 제비 뽑기에서 운이 좋았다. 두 사람 모두 가족 간의 유대, 교육, 성실, 타인에 대한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애정이 넘치는 부모 슬하에서 태어났다. 바로 이 가치들이 내 작은 가정의 뼈대를 이루고 미래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남편과 나는 자신이 얼마나 특혜 받은 사람인가를 이해하도록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한다. 그들이 가진 재능과 자원을 감사하게 여기고 타인을 위해 그러한 재능과 자원을 쓰라고 가르친다. 우리 가족의 삶 속에는 좋은 음식과 오락도 있지만, 자선활동과 지역사회 봉사, 다른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아동용 서적, 관용·다양성·연민에 대한 엄마의 끝없는 설교도 있다.

나는 아메리칸 드림이 누군가가 꾸며낸, 실현불가능한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박수를 보낸다. 나는 내 가정에서 뿐 아니라 친구, 이웃, 그리고 하루하루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낯선 사람들에게서 아메리칸 드림을 본다. 내가 생각하는 미국 가정의 얼굴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말끔하게 다듬어진 잔디밭에 서 있는 금발의 부모와 2.5명의 자녀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우선 내 아이들이 다니는 협동조합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 가족의 얼굴이 있다. 흑인 남편과 귀여운 자녀를 둔 작은 체구의 붉은 머리 아일랜드 여성, 세 명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두 여성, 두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기 힘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미혼모 등이 떠오른다. 동네에서도 다양한 얼굴과 마주치게 된다. 미국 여성과의 사

이에서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이라크 남성, 아버지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란 출신인 우리 집 부모, 한국인 심리학자와 그 아내.... 다양성은 살아 있고 어디에나 있다. 최소한 내 삶에서는 말이다.

나는 이 미래 ‘이민자들의 땅’의 독립정신을 공고히 했던 200여년 전의 최초의 반란 행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독립정신 하에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사회적 불관용, 편견, 박해를 피해, 그리고 자유와 진정으로 자신의 것인 삶을 살 권리를 열망하며 이 나라로 왔다.

때로 미국 역사 초기의 비극적이고 끔찍한 부분에 대해 생각할 때면 마음이 움츠러들곤 한다. 그러나 역사에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함께 갖고 있지 않은 나라, 문화, 종교, 개인이 있는가. 물론 이 나라에는 간혹 나를 분노하게 하거나 수치나 환멸을 느끼게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점은 결혼, 부모가 되는 것, 일, 친척, 우정 등 우리 삶에 존재하는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미국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슬픔은 그로 인해 느끼는 놀라움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 젊은 나라가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지, 어떻게 경제적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라섰는지, 외국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돈을 쓰면서도 어떻게 끊임없이 ‘더 크고 더 좋고 더 현명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밝게 하는지.

나 역시 미국 하면 흔히 떠오르는 특정한 피상적인 가치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내 딸들에게 그런 가치의 무의미함을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이 나라에 건재한 독립성, 다양성, 표현의 자유와 같은 더 위대한 가치들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남편과 내가 ‘미국에서 부모 노릇하기’라는 복잡한 여정을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가치들이다.

미국인은 개인을 중시한다. 그 결과 미국은 정말 독특하고 별나고 남다른 재능을 가졌으며 자기주장이 매우 강하고 성취욕이 뚜렷하며 다면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각자 독특한 성격을 가진 내 딸들은 여자아이다운 소녀면서 말괄량이 운동선수고 책벌레며 예술가고 인정 많은 세계 시민이다. 물론 나는 이 모든 측면,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최대한 존중한다.

미국인들은 또한 자기탐색의 행위를 존경한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겹겹이 쌓인 층을 벗겨내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찾고, 무엇이든 최소한 한 번은 시도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탐색을 지나치게 관대한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5살 된 내 딸이 정해진 선 바깥에 색칠을 하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는다. 오히려 아직은 아이가 규칙에 순응하거나 규칙을 따르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슴 속에서 자부심이 끓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나는 좀 더 정돈되지 않고 보헤미안적이며 더 진보적일 수 있는 뭔가를 위해 경계를 거부하는 아이의 결정을 존중한다.

맞다. 이것은 그저 색칠책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것은 미국인들이 최고가 되고자 할 때 이는 단지 경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저항하고, 한계를 시험하고, 위협을 무릅쓰는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그 땅이 대변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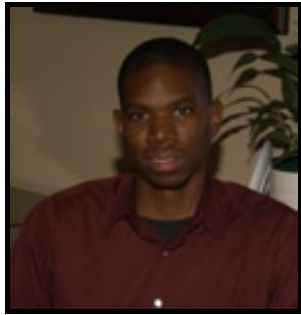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수줍음을 타거나 외향적이 될 자유, 머리가 좋거나 좀 모자랄 자유, 세련되거나 지저분할 자유, 구식이거나 전위적이 될 자유가 있다. 원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고, 순응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하거나, 분란을 일으키거나 누군가의 비위를 거스를 것을 염려하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하거나, 현 상태에 도전할 수도 있다. 내 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보게 될 날이 기대된다. 그 아이들이 자기표현의 과정에서 하는 일 중에는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내 딸들이 경계선 바깥에 색칠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더 나아가서는 칭찬해줄 것이다.

본 기사에서 표현된 의견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미국: 공군 이야기

코리 런던

미국 공군 사병 출신인 코리 런던은 최근 조지아 주 오거스타 소재 오거스타컬리지를 졸업했으며 현재 오거스타에 있는 페인컬리지에서 홍보실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진제공 : 코리 런던

초등학교 시절 역사시간에 선생님께서 1900년대 초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오고 싶어 했던, 대부분 유럽인이던 사람들에게 대해 들었던 기억이 난다. 배편을 사서 미국으로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민자라고 불렀다. 그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기회의 땅이며 미국에 가면 거리가 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금이 깔린 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언제나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불잡혀 노예매매를 통해 미국, 남미, 카리브해의 섬으로 끌려 온 사람들에게 대한 수업도 기억한다. 신세계로 오는 긴 횡단 여행에서 이 아프리카인들이 처했던 끔찍한 생활 여건에 대해 들었던 것도 기억한다. 또한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기 전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잔혹한 처우에 관한 이야기도 기억한다.

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살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았다. 가끔 내 검은 피부색을 보면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지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내 조상들이 겪었던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신에게 감사한다.

이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종종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온 사람들과 노예제의 사슬에 묶여 이곳에 끌려와 더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견뎌낸 과거 세대 사람들을 떠올리곤 한다. 두 집단 모두 역경을 극복했으며, 이후 세대가 더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피와 땀을 흘렸다.

미국인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제외하고 미국인은 모두 다른 국가 출신이거나 최소한 그 조상들은 외국에서 왔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도 다르지 않다. 부모님은 카리브해 서인도제도의 작은 섬 출신으로 어머니는 과들루프섬, 아버지는 생마르탱섬 태생이다. 10대 시절 생마르탱에서 처음 만난 어머니와 아버지는 1960년대 후반 각기 다른 시기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뉴욕에 정착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미 미국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아버지는 군인이 되어 20년 동안 복무했다. 군인이라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우리 가족은 안락한 삶을 누렸고 다른 상황에서라면 아마도 가보지 못했을 세계의 많은 곳을 볼 수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형이 공군에 입대했고 나 역시 1년 간 대학에 다닌 후 공군에 입대했다. 현재는 군 복무를 마치고 군의 학자금 지원을 받아 대학과정을 거의 마친 상태다. 교육 지원 외에도 나는 미 공군의 일원으로 조국에 봉사하는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추억을 얻었다.

운 좋게도 나는 공군 최고의 보직 중 하나인 공보실에 배치되었다. 각 기지의 신문을 취합하는 공보실 업무를 통해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다른 공군 장병들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잊혀지지 않는 경험 중 하나는 알래스카 현지 원주민에게 발전기와 기타 보급품을 전달하는 공수 비행 중대를 취재하러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온 취재진을 도와 북극권 내의 작은 벽지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다. 보급품 공수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몇 주 전에 수행되는 연례 행사였다. 가장 좋았던 것은 보급품과 장비에 고마워하는 마을 주민들을 보는 것이었다. 이 일은 공수 임무에 참여한 공군 장병들의 전형적인 하루 일과였다. 이들은 청렴을 가장 우선시하고, 자신보다 봉사를 앞세우며, 모든 일에서 우수성을 추구한다는 공군의 핵심 가치를 생활 속에서 구현하고 있었다.

미국의 군인, 수병, 해병대원, 공군병이 이라크에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TV나 신문에서 보는 것이 힘겨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를 애국자라 여기며 조국에 봉사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입대했지만,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군에 입대한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었다. 나는 학자금을 벌고 군대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교육 받기를 원했다. 함께 복무한 많은 동료 병사도 같은 이유로 입대했다. 목숨을 잃은 군인에 대한

보도를 접할 때면 나는 저 큰 가방에 넣어져 싸늘한 주검으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나일 수도 있었음을 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 세대가 또 다른 9/11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이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이 치른 희생의 일부다.

본 기사의 의견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미국: 도시와 꿈

애슐리 무어

애슐리 무어는 텍사스 포트워스의 텍사스 크리스찬 대학을 갓 졸업하고 현재 뉴욕시 쿤데 나스트 출판사의 브라이드닷컴(Brides.com) 현지판에서 일하고 있다. 언젠가는 텍사스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사진제공: 애슐리무어

어린 시절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배웠다. 선생님들은 “미국은 기회의 땅”이며 “노력과 굳은 의지로 이 좋은 나라의 결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호기심에 찬 어린 우리는 역사 교과서의 페이지를 뒤적여 풍요로운 삶을 찾아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20세기 초 봄비는 이민선에 실려 낯선 땅에 첫 발을 디딘 이민자들에게 풍요로운 삶이란 안정된 직장, 식탁 위의 음식,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뜻했다. 교과서를 더 읽어나가며 우리는 ‘풍요’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힘겨운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식탁 위 먹을 것이나 은행에 입금할 돈처럼 뭔가 손에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꿈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좌절도 많았다. 성장하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교과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닥친 역경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또 때로는 인종적인 문제로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꿈은 계속되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꿈은 점차 실현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면서 미국의 얼굴에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학창시절의 교과서를 들춰 본 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역사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은 더 오래되었다. 그러나 최근 나는 간혹 그 시절을 떠올리며 나 자신의 꿈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뉴욕의 동네에서 몇 블록만 가면 백여 년 전 이민자들이 피와 눈물을 흘려가며 부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던 동네가 있다. 야심찬 젊은 작가로서 피를 흘려 본 경험은 없지만 내게도 눈물 흘릴 일은 있었다. 결코 포기하거나 무릎을 꿇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와 이 도시의 초창기 이민자들은 닮은 구석이 있는 듯하다. 나는 매일 도시에 들어선다. 도시는 어둡고 흥하며 갖가지 유혹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 겨울도 아닌데 말이다. 그러나 낮에는 잡지사에서 기사를 쓰고 밤에는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피곤한 일상이 저물 때, 내 꿈은 언젠가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내게 속삭인다. 나는 지친 나 자신에게 되묻는다. 그 결실이 대체 무엇이냐고. 고향 부모님 집의 거실 크기만한 비좁은 내 원룸 아파트? 아니면 먼지 앉은 치즈한 조각이 전부인 텅 빈 냉장고?

선생님들은 다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며 “노력과 굳은 의지로 이 좋은 나라의 결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 학교 수업에는 아름다운 순진성이 있었다. 어린이는 무엇이든 믿고, 누군가 더 이상 믿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믿는다. 아메리칸 드림 역시 본질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나이를 먹으며 때로 내게 결코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꿈은 여전히 내 안에 건재하다.

내게 찾아 올 행운은 결코 멋진 자동차나 최고층의 호화 아파트가 아닐지도 모른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스스로의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지금도 그 꿈은 쉼 없이 나를 자극한다.

본 기사의 의견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미국: 신세계

에부 파텔

일리노이 주 시카고 소재 인터페이스 유스 코어의 소장인 에부 파텔은 범종교 운동을 이끌고 있다.



사진제공: 에부 파텔

나는 미국을 사랑한다. 미국이란 나라가 완벽하다는 환상 때문이 아니라 인도 출신 이슬람 이민자의 아들인 내게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그 약속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가능성의 실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최초의 유럽 정착민 중 하나인 존 윈스롭은 이러한 의미의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그는 동족들에게 그들의 새 사회가 언덕 위의 도시, 세계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윈스롭의 기독교적 신앙에 뿌리를 둔 희망이었으며, 그가 상상한 언덕 위 도시의 중심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침탑(교회)이 있었을 것이다. 그 후 수 세기 동안 미국은 매우 종교적인 국가인 동시에 동시에 놀라운 정도로 다원적인 사회로 발전했다. 실제 미국은 서구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독실한 나라이자 세계 최고의 종교적 다양성을 가진 나라다. 언덕 위 도시의 중심에 자리잡은

침탑은 이제 이슬람 사원의 침탑, 유대교회당의 히브리어 문자, 불교 교단의 독경 소리, 힌두교 사원의 조각상으로 둘러싸여 있다. 사실 현재 미국에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종교였던 성공회 신자보다 이슬람교도가 더 많다.

100년 전, 위대한 흑인 학자 윌리엄 에드워드 두보이스는 흑인 차별이 20세기 최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세기는 다른 차별이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종교적 차별이다. 북아일랜드에서 남아시아, 중동에서 중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비난하고 억압하고 살해하고 있다. 내 나라(미국), 내 종교(이슬람), 그리고 신의 모든 백성에 있어 가장 시급한 질문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개념의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할 것인가? 과연 기독교회의 침탑, 이슬람사원의 침탑, 유대교회당, 힌두교 사원, 불교 교단이 새로운 언덕 위의 도시에서 공존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관용과 존중이 혼재하는 미국의 기풍 속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뭔가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은 거대한 영혼의 집합소다. 그 영혼의 절대 다수는 외부에서 왔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능력의 비범함은 이러한 영혼들이 각자의 고유한 기질로 미국적 전통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미국의 노래에 새로운 음색을 더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

나는 이슬람 영혼을 가진 미국인이다. 나의 영혼에는 신의 의지에 순종하고자 했던 영웅, 운동, 문명의 유구한 역사가 흐른다. 내 영혼은 신의 자비로운 정의와 유일성 등 이슬람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 무하마드의 설교를 들었다. 중세시대에는 동방과 서방으로 뻗어나가 카이로, 바그다드, 코르도바 등 위대한 중세 이슬람 도시의 사원에서 기도하고 도서관에서 학문을 닦았다. 무하마드 루미¹와 함께 회전춤을 추었고 아베로에스²와 함께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었으며 나시르 쿠스로우와 함께 중앙아시아를 거쳐 여행했다. 식민지 시대 나의 이슬람 영혼은 정의를 향한 격동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 사티아그라하³에 헌신한 압둘 가파르 칸, 쿠다이 키드메르타르⁴와 함께 인도의 독립을 위해 행군했으며 파리드 이삭, 이브라힘 무사⁵, 라히드 오마, 이슬람청년운동과 함께 다문화적인 남아프리카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참여했다.

나는 한 눈으로는 다원주의에 대한 이 태고적 이슬람의 비전을, 다른 한 눈으로는 미국의 약속을 본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서로 다른 종교적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언덕 위의 도시, 다양한 나라와 민족이 형제애와 정의의 정신 속에 서로에 대해 배워나가는 세상, 우리가 함께 공동의 삶을 이루는 세기 말이다.

본 기사의 의견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¹ 페르시아의 시인·신비주의자. 회전춤(“Whirling Dervishes”)으로 신과 교감하는 신비주의 교단 메블레비를 세웠다.

² 아라비아의 철학자·의학자

³ 비폭력 불복종 운동

⁴ ‘신의 종복’이라는 뜻으로 영국 식민지배에 대항한 파슈툰족의 비폭력 시민운동 세력

⁵ 이슬람 학자

나의 미국: 아메리카의 의미

켈리 맥윌리엄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와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자란 켈리 맥윌리엄스는 매사추세츠 주의 예술 기숙 학교인 윌넛힐스쿨에 다녔다. 2004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첫 소설 '도어멧'을 출간했다. 내년에는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대학에 입학해 문학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켈리 맥윌리엄스

캘리포니아 출신인 나는 대륙을 가로질러 보스턴으로 왔다. 이 곳 동부 해안은 문화적으로, 풍경으로서, 삶의 터전으로 모든 것이 내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르지만 나는 그래도 이곳을 미국으로 인식한다. 나는 고향과 보스턴 사이에 가로놓인 4천8백 킬로미터의 거리, 그 엄청난 광활함, 들판, 서부의 도시들, 산, 탄광, 부유하고 가난한 집들, 수백만의 서로 다른 목소리, 다른 언어에 대해 상상하곤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역시 미국이라는 것을 안다.

미국은 무엇인가? 내게 미국은 삶의 터전이지만 누구나 항시 미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조상들에게조차 미국은 때로 집이 되어 주지 못했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로서 나는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금처럼 유연한 국가라는 것을 안다.

탈출한 노예 출신의 저명한 노예해방론자이자 내가 언제까지나 사랑할 작가, 프레더릭 더글라스는 글의 힘으로 처음에는 감옥을, 후에는 이 나라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다. 미국에선 글이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나는 작가다. 나는 미국인이다.

이 땅이 과거에 얼마나 불완전했건 또는 현재 얼마나 불완전하건 나는 뼈가 먼지가 될 때까지 여기서 일할 것이다. 역사는 이 땅에서 인간의 영혼의 양식인 진실을 열매 맺도록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손짓한다. 자유, 기회, 조국의 잘못에까지 대항해 싸울 권리가 그런 진실이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한, 나는 미국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최근 나는 어째서 더 많은 미국인이 옳지 않은 일에 반기를 들고 나서지 않는지, 어째서 잠시라도 침묵하는지 궁금히 여겼다. 그러나 언제나 민중은 결국 정의의 편에 서고, 언론은 그에 화답해 문제를 파헤치고 공론화하며, 우리는 역사의 우리 몫에 대해 답하기 시작한다. 이 순간에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미국이 저지른 불의를 성토했다. 관타나모 기지 사건은 국가로서 우리에게 암흑의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외교정책이 나의 낙관주의에 도전을 던지지만, 나는 국민이 이 나라의 시인임을 기억한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악몽을 꾸더라도 언제나 거기서 깨어나도록 하고야 말 것이다.

프레더릭 더글라스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뿐 아니라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한 글을 썼다. 그는 다른 많은 노예들처럼 캐나다로 떠나지 않았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보스턴 근처의 동부해안에 남았고, 여행을 했고, 뿌리를 내리는 씨앗처럼 자신의 글을 퍼뜨렸다. 그의 선례가 있는 이상 나는 미국이 그 국민에 맞추어 만들어지고 또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미국은 그럴 의지가 있다. 미국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나는 미국인일 것이다.

본 기사의 의견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본 미국인

미국 통계 개요

<http://www.census.gov/statab/www/>

인구(추정, 2006. 6. 6., http://www.census.gov 참조)	298,346,797
인구(2004, 추정)	293,655,404
18세 미만 인구(2004, 추정)	25%
65세 이상 인구(2004, 추정)	12.4%
여성 인구(2004, 추정)	50.8%
백인 인구(2004, 추정)	80.4%
흑인 인구(2004, 추정)	12.8%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2004, 추정)	1.0%
아시아계 인구(2004, 추정)	4.2%
하와이 원주민 및 기타 태평양섬 주민(2004, 추정)	0.2%
혼혈 인구(2개 이상 인종)(2004, 추정)	1.5%
히스패닉/라틴계를 제외한 백인 인구(2004, 추정)	67.4%
히스패닉/라틴계 인구(2004, 추정)	14.1%
가정 내에서 영어 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2003)	18.4%
고등학교 졸업자(25세 이상 인구 대비, 2004)	85%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25세 이상 인구 대비, 2004)	28%
장애인(5세 이상, 2004. 4. 14. 갱신)	12.5%
주택 소유 비율(2004)	69%
가구당 인구(2004)	2.57
빈곤선 미만 인구(2003)	12.5%
합법 이민자(2004)	946,000
불법 이민자(2004, 추정)	7,000,000
외국 태생 인구(2003)	11.9%
주소지 변경(2003-2004)	13.3%

- 가장 인구가 많은 주(2004) – 캘리포니아, 35,894,000명
- 가장 인구가 적은 주(2004) – 와이오밍, 507,000명
- 2000-2004년 가장 빨리 성장한 주 – 네바다, 16.8% 증가
- 도시 거주자가 가장 많은 주(2004) – 뉴저지
- 최대 대도시 – 뉴욕시/뉴저지, 18,710,000명
- 외국 출생 주민이 가장 많은 도시 – 캘리포니아 산호세, 40.5%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케네스 켄다

케네스 켄다는 일리노이 주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다.

다른 민주국가에 비해 미국은 매우 분산된 정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은 단일한 정치기관으로의 권력 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극도로 경계했고, 따라서 의도적으로 다른 부문과 차원의 정부조직에 권한을 분산시켰다. 권력의 집중을 지양한 미국식 제도는 정부가 국민 다수의 의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엄격한 ‘다수결주의적’ 민주주의 모델과 대조를 이룬다.

미국식 민주정부의 모델인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 모델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미국 건국의 비전을 반영한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정부 권력과 권한의 분산을 요구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다양한 집단(예컨대 경영진 대 근로자, 농민 대 식료품점, 석탄회사 대 환경운동가 등)의 이해에 대해 ‘열려 있는’ 복수의 권력

중심지 사이에 정부의 권한이 나뉘어져 있을 때 존재한다. 다원주의적 사회에서는 이들 집단이 서로 경쟁한다.

다원주의 이론에서 권한의 분산은 정부가 성급하거나 분별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중요 권력 중심 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 권력의 분산이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는 하나, 일부 제도적 특징은 정책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없더라도 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력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 정치제도의 주요 특징이 어떻게 정치적 권한의 분산과 집중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지 살펴본다.

중앙의 권한에 대한 불신

아메리카 최초의 13개 영국 식민지 주민들은 조지 3세의 백성이었지만 바다 건너에서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중앙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1775년 영국의 지배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 1776년 독립선언서는 조지 3세가 ‘이 주들에 완전한 폭정’을 자행했다고 규정했다. 독립전쟁 중 식민지 주민들은 반란주 사이의 동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 연합규약 하에 미합중국을 결성했다. 연합규약이 마침내 비준, 발효된 해인 1781년에 식민지 주민들은 독립을 쟁취했다.

식민지 연합정부의 취약성은 종전 후 뚜렷하게 드러났다. 권력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었던 것이다. 연합 자체는 과세 권한도, 행정권을 가진 지도자도 갖지 못했고 상거래를 규제할 수도 없었으며 연합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만장일치의 찬성이 필요했다. 1787년 규약의 개정을 위해 필라델피아에 모인 각 주 대표자들은 기존 규약을 개정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헌장인 미합중국

헌법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 헌법은 강력한 중앙 권한을 가진 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다. 대표자들은 여전히 분산된 정부를 추구하되 연합규약에서보다 중앙의 조율 기능을 강화했다. 새 정부구조는 집중과 분산 사이의 균형을 도모했고, 200년 넘게 훌륭히 기능을 수행해 온 장수 정부를 탄생시켰다.

권력 분산을 증진하는 제도적 특징

미국 정치제도에는 권력의 분산을 증진하는 다수의 특징이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특징은 (1) 연방주의, (2) 권력분립, (3) 상원과 하원이 동일한 비중을 갖는 양원제, (4) 두 개의 상이한 선거체계가 존재하는 이원적 선거제도다.



미국 국회의사당은 연방정부의 중심지다. 사진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것이 대법원 건물.

(1) 연방주의

헌법 제정자들은 연합형 정부모델 대신 연방형 모델을 채택했다. 연합규약이 각기 ‘주권, 자유, 독립’을 유지하는 주들의 ‘영속적인 동맹’을 약속했던 데 반해 헌법에서는 주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헌법은 “우리, 합중국의 국민”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어 새 정부가 주보다는 개인을 대변함을 암시했다. 연방주의의 개념 하에서는 동일한 사람과 동일한 영토에 대해 두 개 이상 차원의 정부가 권력과 권한을 행사한다. 예컨대 중앙정부는 해외의 적으로부터의 방위를 제공하고 주 정부는 ‘경찰력’의 행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 도덕, 안전, 복지를 수호한다. 중앙정부는 주의 협력이 있을 때에만 이들 분야에 개입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주 고속도로 건설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주의 학교에서 특정한 절차를 따를 경우 교육제정을 지원할 수 있다. 경찰력이 각 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건설, 학교 개선, 결혼·이혼·형사처벌 등의 관리에 있어 중앙정부의 권력은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기능은 각 주의 통제 하에 분산되어 있다.

(2) 권력분립

헌법은 정치권력을 정부의 3개 부문에 분리한 구조를 탄생시켰다. “모든 입법권”을 의회에 부여했고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사법권”을 대법원

과 의회가 설립하는 하급법원에 부여했다. 또한 권한의 분산을 한 단계 발전시켜 각 국가기관이 타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냈다. 예 1: 입법 권한은 의회가 갖지만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의회는 2/3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예 2: 조약의 협상 권한은 대통령만이 갖지만 상원의 2/3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조약도 발효될 수 없다. 예 3: 의회가 대법원의 구조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지만 법관들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은 의회와 대통령의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다. 마지막 사례와 관련하여 의회와 대통령의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이 헌법에 명시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원의 권한은 1803년의 마베리 대 매디슨 재판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이렇듯 복잡한 권력분립은 정부 권한의 분산에 기여한다. 대통령이 정부 사업을 제안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업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법원에 법안이 회부될 경우 법원은 이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미국에서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입법 과정이 좀 더 단순하며 전세계 민주국가 중에는 이 체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훨씬 많다. 보통 정부 각료가 제안한 입법안을 의회의 다수당이나 연합세력이 통과시키며 법안 무효화에 있어 대다수 법원은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는다.

(3) 양원제 의회

미국 입법과정의 권력 분산은 양원제 의회에 의해 한층 강화된다. 많은 국가가 두 개 의회(대개 상원과 하원)로 구성된 양원제 입법기관을 두고 있지만 양원이 사실상 동등한 권한을 갖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미국의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435명의 의원이 인구 규모 기준으로 지역별로 선출되므로 하원(lower house)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규모면에서 더 작은 상원(100명)은 더 연령대가 높은(하원의 최소 연령이 25세인데 비해 상원은 최소 30세) 의원들로 구성되고 2년이 임기인 하원과 달리 훨씬 긴 6년 임기로 선출된다. 상원의원은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50개 주에서 각 2명씩 선정된다(2년마다 1/3씩 선출). 미국 헌법에 따르면 양원의 권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가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하며 조약과 대통령 임명은 상원에 의해서만 승인된다. 입법에 있어서 상원과 하원이 갖는 동등한 권력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점은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제출되려면 동일한 형태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그 결과 권력이 상원이나 하원 어느 한 쪽에 집중(대다수 국가에서처럼)되지 않고 양원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4) 선거제도

미국은 단일한 선거제도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분리된 이원화된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 두 선거제도 모두 권력의 분산에 기여한다. 대통령 선거부터 살펴보자. 대통령선거는 전국에 걸쳐 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전국’ 선거가 아니다. 대통령선거는 538명 규모의 ‘선거인단’ 중 다수(270명)를 획득하는 후보에게 대통령직이 돌아가는 연방선거다. (538명이라는 선거인단 수는 하원 및 상원의원 수와 워싱턴 D.C.의 투표권 수를 합한 것이다.) 주에서는 해당 주의 선거인단 1인당 한 표를 갖고 각 주는 의회 내 의석 수 만큼의 선거인단을 확보한다. 가장 작은 주(하원의원 1명과 상원의원 2명)의 경우 선거인단이 3명에 불과하다. 가장 큰 주인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 규모는 55명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실제로는 주별 선거인단이 속한 정당을 보고 투표하게 된다. 선거 후 각 주의 선거인단이 주 의회에서 만나 대통령을 선출한다. (전국의 선거인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없다.) 주 선거인단의 다수를 획득하는 후보가 해당 주의 전체 선거인단을 차지한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들은 국가 전체가 아니라 개별 주를 공략하는 분산형 선거 유세를 펼친다. 의회 선출제도 역시 권력분산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대다수 민주국가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원을 선출한다.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별 득표에 비례하여 의석이 정해지는 것이다. 미국은 다수대표제로 의원을 뽑는다. 한 의석을 두고 여러 명의 후보가 경쟁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의석을 차지한다. 직접적인 선거 승리를 통해 의원직에 오르기 때문에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소속 주와 지역구를 만족시키도록 노력하며, 이 때문에 주와 국가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지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게 된다.

권력 집중을 증진하는 제도적 특징

연방주의, 권력분립, 양원주의, 선거제도 등은 모두 미국의 권력 분산에 기여하여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모델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정치적 권한의 분산은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국민 대다수의 이익보다는 조직된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도록 할 위험을 수반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정자들은 무엇보다 정부 권한의 분리와 견제에 관심을 가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을지 모를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 정부 권한의 집중을 확대했다. 그러한 제도적 변화 중 (1) 대통령직, (2) 양당제, (3) 대법원 등 세 가지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대통령직

헌법 제정자들은 헌법 제 1조에서 2,200개가 넘는 단어를 사용해 입법부에 대해 설명했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제 2조에서 겨우 1,000단어 정도로 기술하고 있다. 헌법 제정자 중 다수가 대통령직을 의회에서 작성, 통과된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직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직은 미국 정부의 중심점이 되었다. 이제 대통령은 국가의 목표를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하고, 국가적인 법안의 자금을 대기 위한 예산을 의회에 보내며, 국제 문제에 있어 국가를 대변한다. 과거 국가적, 국제적 위기 시에 대통령들은 통상 의회의 협력을 받아 대통령직의 권력을 확대했고 이제 대통령직은 국가 여론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기관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직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주의적 모델에 보다 가깝다.

(2) 양당제

1787년까지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미국 헌법은 선거인단 표의 과반수를 획득하는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2위 득표자에게 부통령직을 주도록 규정했다. 그러던 중 1796년 선거 이전에 의회에서 2개 정당이 결성되었고 이들은 서로 다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승자인 존 애덤스(연방파)는 경쟁자였던 토머스 제퍼슨(공화파)을 부통령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1804년 헌법 개정으로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별도로 선출하게 됨으로써 정당의 존재가 인정되었고 정당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를 내게 되었다. 더욱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정당이 발전함으로써 양원 간 조율이 촉진되었다. 대



2004년 12월 13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주 의회 의사당에서 오하이오주 선거인단이 투표하고 있다.

통령직을 차지한 정당은 대통령과 의회 간 업무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두 개 정당만이 미국의 정치를 지배했다는 사실 역시 권력의 분산에 일조했다. 미국의 정치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양대 축으로 움직이며 둘 중 한 정당이 여당, 다른 한 당이 야당이 된다. 소수 정당이 거의 힘을 갖지 못하는 미국에서 양당제도는 권한의 집중에 기여한다.

(3) 대법원

헌법 제정자들은 대법원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못했다. 헌법 제 3조에서 대법원에 대한 설명은 400단어도 채 되지 않으며 법원의 권력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 1803년 법원은 만장일치의 판결을 통해 사법심사의 권력을 주장했다. 사법심사는 미국 헌법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심사할 권한을 말한다. 이 판결의 결과로 정치제도 내에서 대법원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 판결은 또한 논쟁적인 정부 조치에 대한 최종적인 발언권을 대법원에 부여했다. 법원은 분립된 권력 제도 하에서 결정에 대한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함으로써 권한의 집중에 기여한다.



2006년 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자유봉사단(USA Freedom Corps)의 창립 4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서에 서명하고 있다. 자유봉사단은 2001년 테러 공격 후 자원봉사의 촉진과 확대를 위해 창설되었다.

결론

이처럼 권력이 정부제도 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는 다수결주의 민주주의의 최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분산 때문에 미국은 복수의 권력 중심이 존재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최고 기준을 훌륭하게 만족시키고 있다. 미국 정치제도는 민주적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경쟁 집단에 열려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엄격한 다수결주의 원칙에 토대를 둔 제도보다 상이한 집단들의 이해와 관심사를 더 효과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결과를 이뤄내고 있다.

본 기사의 의견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FAQ

미국 국기에 그려진 별과 줄무늬는 무슨 의미인가?

13개의 줄은 아메리카 최초의 13개 식민지를 의미하며 별은 주를 뜻한다. 따라서 별의 수와 문양은 새로운 주가 생길 때마다 바뀌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미합중국의 일부가 된 1959년부터 국기에는 50개의 별이 새겨져 있다.

미국의 국가색이 빨강, 흰색, 파랑인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국새가 처음 승인되던 1782년 대륙회의의 의장은 흰색은 순결과 순수를, 붉은색은 생명력과 용맹을, 파란색은 경계, 끈기, 정의를 의미한다고 천명했다.



미국에는 몇 개의 주가 있나?

50개 주가 있다. 수도인 콜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는 특별 연방구역이다. 미국의 자치령으로 푸에르토리코가 있으며 기타 아메리칸 사모아, 괌, 미드웨이군도, 버진아일랜드가 미국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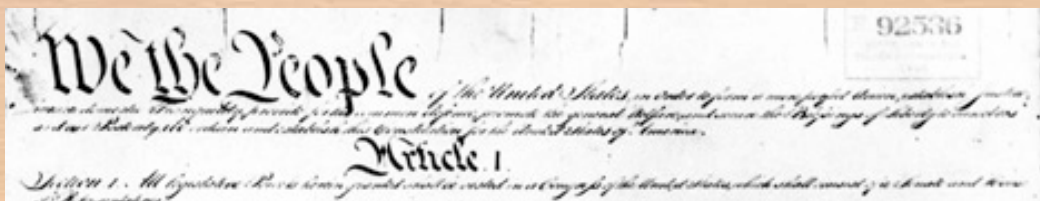
미국의 공식 상징은 무엇인가?

흰머리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으로서 1776년 제작된 매사추세츠 주의 동전에 처음 모습을 나타냈으나 의회는 1789년이 되어서야 이를 국장으로 선택했다. 흰머리독수리는 강인함, 용기, 자유, 불멸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으며 다른 독수리와 달리 북미지역에서만 자생한다.



미국 헌법의 첫 부분은 어떻게 시작되나?

“우리, 합중국의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제공하고, 일반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합중국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헌법 초안을 기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헌법제정회의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 버지니아 주의 제임스 매디슨이다.

헌법제정회의의 의장은 누구였는가?

조지 워싱턴이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헌법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얼마인가?

헌법 초안은 근로일 기준으로 100일 이내에 작성되었다.

각 주에서는 어떤 순서로 헌법을 비준했는가?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조지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매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버지니아, 뉴욕의 순서로 비준했다.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노스캐롤라이나와 로드아일랜드도 뒤를 따랐다.

‘미합중국’이라는 표현은 언제 처음 쓰였는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공식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독립선언서에서였다. 1776년 2월 토마스 페인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아메리카의 주들(Free and independent States of America)”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775년과 1776년에는 “식민지연합(United Colonies)”, “아메리카 식민지연합(United Colonies of America)”, “북아메리카식민지연합(United Colonies of North America)”, “주들(States)”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1789년 채택된 이후 미국 헌법에는 얼마나 많은 수정조항이 추가되었는가?

27개의 수정조항이 추가되었다.

독립선언문의 문구 중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음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에겐 삶, 자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는 것.”

미국 국가인 ‘성조기여 영원하라’의 1절 가사는?

오, 말해 보게, 그대 새벽의 서광으로 볼 수 있는가
황혼의 마지막 빛 속에 우리가 무엇을 그토록 자랑스레 반겼는지를
우리가 바라본 성벽 위로 그 위험한 전투를 뚫고
누구의 붉은 줄무늬와 밝은 별들이 그토록 당당하게 나부끼고 있었는지를
신호탄의 붉은 섬광, 창공에서 터지는 폭탄이
우리의 깃발이 아직도 거기에 있음을 밤새 증명해 주었네
오, 말해보게, 자유인의 땅이자 용감한 자의 고향에
저 성조기가 아직도 휘날리고 있는가?



길버트 스튜어트가 그린 제임스 매디슨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



이 그림은 프랜시스 스콧 키가 1812년 전쟁에서 영국군의 요새 포격을 목격한 다음 날 볼티모어 하버에서 맥켄리 요새에 휘날리는 미국 국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 장면에서 감명을 받은 그는 ‘성조기여 영원하라’의 가사를 쓰게 되고 이 곡은 1931년 미국의 공식 국가로 지정되었다.

미국의 문화적 태피스트리

게리 위버

게리 위버는 아메리칸대학교 국제서비스대학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의 행위와 공공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 많은 언어에서 ‘문화’는 대개 미술, 음악, 역사, 문학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문화의 결과나 유물로 여겨질 것이다. 문화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훨씬 더 인류학적이다. 미국 영어에서 ‘문화’는 단순히 학습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수되는 어떤 집단의 삶의 방식을 뜻한다. 여기에는 대다수 미국인이 공유하는 근본적인 믿음, 가치, 사고의 양식, 세계관이 포함된다. 우리는 문화의 이런 외적인 측면을 점검하고 이들이 우리의 내적인 가치, 믿음,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의 내적인 문화를 이해하지 않는 한 공공정책을 비롯한 외적인 행위를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의 지배적 문화나 주류 문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면 아마도 빙산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빙산은 거의 모든 부분이 물 속에 숨겨져 있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문화는 거의 모든 부분이 내적이거나 우리 머리 속에, 그리고 의식의 지각이라는 수면으로부터 훨씬 아래에 있다.



태양과 비로 빙산이 녹듯이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 바탕은 시간이 흘러도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근본적인 믿음, 가치, 사고방식, 세계관은 매우 느리게 변화한다.

문화의 이러한 부분은 특정 사회나 가정에서 성장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학습된다. 아침 식탁에서 아이와 함께 앉아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가르치는 부모는 없다. 오히려 이런 가치는 특정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만으로 무의식적으로 학습된다. 이것이 우리가 고국을 떠나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접촉하기 전까지 자신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다.

개인적 성취의 강조

처음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유럽식 믿음과 가치를 ‘신세계’에 들여왔다. 이들은 무제한적인 천연자원과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땅에 정착했다. 유럽에서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가난하게 죽을 수 밖에 없었다. 유럽의 믿음과 가치, 풍부한 자원과 기회의 결합은 우리가 ‘미국적’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들을 창조했다.

개인의 성취와 계급 이동에 대한 이렇듯 새로운 믿음과 가치는 보상받고 강화되었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직업에 따라 스스로를 식별하기 시작했다. 파티에서 미국인을 만나게 된다면 이런 인사를 흔히 듣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게리 위버입니다. 아메리칸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쪽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러나 다른 많은 문화에서 사람들은 출신(‘나는 누구인가’)을 기준으로 자신을 파악한다. 서부 아프리카 사람은 낯선 이를 만났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바스의 강 상류에 사는 탐시에 세카의 아들 팍세카입니다”라고 인사할지도 모른다. 그의 정체성의 일차적인 원천은 그가 누구인가, 즉 그의 아버지와 출생지다. 그의 지위는 개인으로서 그가 무엇을 하는가나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의 가정과 유산에 토대를 둔다.



매사추세츠 주 브록턴에 사는 티나 솔로몬(88)이 흑인 흑제인 크완자의 첫날 밤을 기념하기 위해 초에 불을 붙이

지나치게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

유럽의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아메리카의 해안에 발을 디딘 최초의 정착자들은 왕, 여왕, 교황을 원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에 대해 매우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1862)의 표현을 빌자면 이들은 ‘정부가 없을수록 더 좋은 정부’라고 생각했다. 물론, 자신들의 ‘신세계’에 대외문제와 외국과의 통상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만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간주되었던 문제를 담당할 국가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은 그들도 알고 있었다.

미국은 한번도 국가적인 경찰력을 보유한 적이 없다. 복지, 법 집행과 판결, 약자 보호 등은 지방관할에 속하는 문제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미국의 인권은 헌법과 권리장전에 보장되어 있다. 이들 문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나친 권력을 가진 중앙정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수호한다.

미국사회에 대한 오해, ‘용광로’

많은 이들이 미국이 지배적 문화나 주류 문화 없이 다수의 다른 문화가 뒤섞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정을 반영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은유가 ‘용광로’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고유의 문화를 들여와 미국이라는 가마에 던져넣는다. 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한 덩어리로 한 데 엉켜 녹을 때까지 이 혼합물을 휘젓고 열을 가한다.

이 개념에 진실이 없지는 않다. 미국이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성이 큰 사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에도 지배적 문화가 있다. 이민자들은 사회의 주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차이점을 포기함으로써 이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흑자는 미국이 백인, 앵글로색슨족, 개신교도, 남성이라는 틀을 모델로 문화적인 ‘절편판’ 방식을 택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백인 남성 이민자들은 앵글로계로 이름을 바꾸고 개신교로 개종하고 외국 액센트가 없는 영어를 구사함으로써 그런 틀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그런 천편일률적인 틀에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성별, 피부색, 머릿결을 바꿀 수는 없다. 또 개개인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세계를 만나자(Meet the World)’ 행사에서 알리트 델 레알(5, 왼쪽)과 하비에 아큐나(6)가 호키쿠에잘-티콘 무용단의 멕시코 무용수들과 함께 춤추고 있다.

‘모자이크’ 또는 ‘태피스트리’

물론 미국은 변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더 이상 용광로나 절편판 문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미국을 모자이크나 태피스트리로 묘사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다.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 같은 은유는 각자의 차이점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사회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자이크나 태피스트리에서는 모든 색상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며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더한다. 모자이크에서 한 조각을 빼거나 태피스트리에서 실 한 줄을 없앤다면 그 모자이크나 태피스트리는 망가진다. 오늘날에는 차이점을 유지하기가 보다 쉬워졌다. 성별, 인종, 출신 국가, 민족, 종교, 성적 지향의 차이가 수용되며, 이런 차이를 포기하지 않고도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갖는다.

외국계 미국인, 즉 이중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민족적, 국가적, 종교적, 인종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멕시코계 미국인, 아일랜드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아랍계 미국인, 이슬람계 미국인, 아메리카 원주민 등은 모두 진정한 미국인이면서 이중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행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나라를 결합시키는 것은 공통의 가치와 믿음 뿐 아니라 영어와 공통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뉴멕시코, 텍사스,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4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비히스패닉계 백인은 인구통계적으로 소수자에 속한다. 2050년이 되면 비히스패닉계 백인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에서 소수인구가 될 것이라는 데에 대다수 인구통계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보통의 미국인들은 이런 경향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듯하다. 사실 대다수 미국인은 다양성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다문화적인 모델을 반영하며, 다르다는 것이 환영 받을 뿐 아니라 심지어 중요시되고 장점으로 여겨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소수자들이 주류 문화에 편입하기 위해 자신들의 차이점을 포기해야 했던 과거로 회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다양성은 수용해야 할 기회이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이슈는 어떻게 차이를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그토록 많은 차이를 가진 사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미국은 언제나 매우 다양성 있는 사회였지만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단지 다른 유럽의 국적과 민족집단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다양성은 모든 인종과 민족집단, 다양한 국적, 남성과 여성, 장애인, 모든 연령대의 피고용자,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뜻한다. 인구통계학적 변화, 전세계적 상호의존성의 증가, 다양성의 명백한 이점이라는 현실 때문에 미국인들은 모든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공존하기 위해 적응하고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것이다.

본 기사의 의견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의 젊은 미국인

폴 말라무드

폴 말라무드는 미국 국무부 국제정보프로그램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업가



제니퍼 라이트-터브스

사진제공: iRUNLIKEAGIRL/일리노이
주 피오리아 컬처클래식스

어떤 사업에서
건 성공적인
브랜드는 매출을
창출한다. 그러나
새 사업에 맞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 역시 삶의 표
현이 될 수 있다.
일리노이 피오리
아의 사업가 제니
퍼 라이트-터브스

가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광고계에 몸담았던 라이트-터브스는 올해 3월 아이런라이크어걸(iRUNLIKEAGIRL)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러닝복 사업을 시작했다. 시선을 사로잡는 이 로고는 학교 운동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모욕(“넌 달리는 게 계집애 같아(You run like a girl)”)을 운동의 중요성과 여성의 자기 동기부여에 대한 자랑스러운 선언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의도로 탄생했다. “부정적인 것을 뭔가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바꾼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 신문인 ‘저널스타’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우리는 일상의 의무 사이를 달리고, 삶의 축복과 실망 사이를 달리고, 건강을 위해 달리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달린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장거리 선수이기도 한 그녀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열성적이고 즐겁게 살도록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이 슬로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이 삶의 방식이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아는 것”이라는 것이다. 아이런라이크어걸은 모어마라톤(40세 이상 여성 대상), 그리고 2주 후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에서 제품을 처음 선보였고 사업 개시 몇 주만에 수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나이를 모르는 활력’을 가진 여성들과 여성을 위해 구매하는 남성들이 주 고객이었다.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난 라이트-터브스는 대학 시절 1마일(1.6km) 달리기 시작했다. 시카고로 옮긴 후에는 거리를 더 늘려 27세에 시카고 마라톤대회, 이후 8개 마라톤대회에 출전했다.

아이런라이크어걸 웹사이트는 달리기가 한 여성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뿐 아니라 에너지, 자기 동기 부여, 열의, 그리고 한계를 거부하는 대담한 자세가 어떻게 “활기차게 달리기”를 가능케 하는지를 전 세계 여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사업은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있다. “사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은 바로 지금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그녀는 맨하탄에서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결국 사업을 확장해 현재의 인터넷 사업에서 오프라인 상점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자신 있다”고 한다. 향후에는 자신의 브랜드를 미국의 더 많은 도시로, 가능하다면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빈자의 의사

폴 파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소년시절 그의 대가족은 플로리다의 이동주택 주차구역 내의 개조된 버스와 텐트, 보트하우스 등을 전전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전 세계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1987년 당시 하버드 의과대학생이던 파머는 동료 의대생 짐 용 김과 함께 보스턴에 파트너스인헬스(PIH)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아이티에 보건소를 설치했다. 약 10만 명의 주민들을 돌보는 이 보건소는 전 세계 빈곤지역에서 질병과 싸우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와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한 보건소의 모델이 되었다. PIH는 “현대적인 의료관리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제공하고 절망의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IH 모델은 이동



폴 파머

건강검진소, 보건 근로자, 보건소, 학교 대상의 훈련 프로그램, 복잡한 약물치료의 가정 내 제공, 전염병 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머와 동료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약물 투여법은 시베리아와 페루 등 여러 곳에서 내성이 생긴 결핵과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가난한 이의 의사’. 파머는 자신을 소재로 ‘산 넘어 산(Mountain Beyond Mountains)’이라는 책을 써 베스트셀러로 만든 작가 트레이시 키더에게 언젠가 스스로를 이렇게 칭했다. 파머는 앞으로도 전세계에서 기아, 질병, 불필요한 죽음을 줄이기를 바란다. “가난하고 병 걸린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침단을 창조하는 패션 디자이너



클리오 다오

1979년 라오스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투 티엔 다오와 휴 톡 루옹에게는 8명의 딸에 대한 꿈이 있었다. 이들 가족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세탁소 겸 수선집을 했지만 많은 근면한 이민자들처럼 자신의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법대나 의대에 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부부의 여섯째 딸인 클로이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10살 되던 해 클로이는 ‘엘자 클렌쉬의 스타일’이라는 CNN의 TV 프로그램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다. 10대 시절에는 집 차고에서 나사와 기타 버려진 잡동사니로 보석을 만들며 아름다운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키우기 시작했다. 마케팅 전공으로 대학에 들어갔지만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디자인 과정에 등록하여 꿈을 좇기로 결심하고 뉴욕의 FIT를 방문했다.

최근 ‘산호세 머큐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클로이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사람은 꿈을 좇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뉴욕 여행을 계기로 그녀는 이브닝웨어 사업체에 취직했고 작은 디자인회사의 경영을 도와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으로 성장시켰다. 2000년에는 휴스턴으로 돌아와 8명의 딸이 있는 자신의 가정을 모델로 부티크 ‘Lot 8’을 열었다. 드레스, 가운, 스포츠웨어 컬렉션을 만드는 Lot 8은 이제 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부티크 중 하나로 성장했으며 전

국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클로이는 또한 여러 디자이너들이 매주 다른 디자인 도전을 해결하는 브라보TV의 인기 리얼리티 쇼 ‘프로젝트 런웨이’에 참여, 두번째 시즌의 우승자가 되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의류 라인을 선보일 수 있는 10만 달러의 상금도 받았다. “저는 모든 사람을 위해 디자인해요. 좋은 패션은 사람을 평등하게 하거든요.”

촉망 받는 학생



이브닝웨어 디자이너 : 엘자 클렌쉬

안나는 우만스카야는 전형적인 미국 10대가 아니다. 우선, 18세 나이에 뉴욕시 브루클린 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또 놀라운 목적의식과 에너지로 인생에 도전하고 있다.

안나는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수여하는 대학 장

안나 우만스카야

신청자 중 학업성적과 학문적 잠재력을 토대로 2006년 장학금을 획득한 총 19명의 뉴욕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안나가 브랜다이스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줄 3만 달러의 장학금 이외에도 타임즈는 선발된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인턴십, 노트북 컴퓨터, 학업 상담을 제공한다. 그녀는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할 계획이다.

10세 때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온 안나는 친척들과 멀리 떨어져 수시로 이사를 다니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현재 브루클린에 있는 프랭클린 딜라노 루즈벨트 고교의 졸업반인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에 커피숍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한다. 그러면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노인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며 글도 쓴다. 지난해에는 브루클린에서 해마다 열리는 고등학생 대상 홀로코스트 추모장학금 에세이 경연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안나 우만스카야의 삶은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고 노력과 성실함으로 기회를 잡는 전통적인 미국 이민자의 성공담과 그대로 일치한다. 안나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브랜다이스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기 위해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했다”고.

전과자의 카운슬러



홀리오 메디나
사진제공: 엑소더스
트랜지셔널 커뮤니티

어떤 사람들은 매우 많은 노력 끝에야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다. 엑소더스 트랜지셔널 커뮤니티(Exodus Transitional Community)의 홀리오 메디나도 그 중 하나다.

메디나는 젊은 시절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되어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경험(그리고 뉴욕 주 감옥에서 받은 종교단체 엑소더스 그룹의 상담)

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더 고귀한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996년 출소한 그는 마약중독자와 HIV 보균자 전담 카운슬러로 일하기 시작했다.

결국, 메디나는 감옥에서 출소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경험을 통해 그는 얼마나 많은 전과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었다. 취직의 어려움, 감정적인 변민,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가 대표적인 이유였다. 1999년, 메디나는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과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엑소더스 트랜지셔널 커뮤니티의 설립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뉴욕 이스트할렘에 본부를 둔 엑소더스 트랜지셔널은 현재까지 감옥, 중독, 노숙생활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복귀하는 1,500명 이상의 남성과 여성에게 도움을 주었다. 엑소더스는 자기평가, 상담, 살 집과 취업 안내, 심지어 컴퓨터교육까지도 제공한다. 미국 노동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되는 엑소더스는 이용자들의 상습적 재범률을 낮춰 75%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전과자의 약 2/3이 재투옥된다.)

메디나는 전과자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전과자 자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그 과정을 겪은 사람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이 문제를 바꿀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미국 기본 통계

미국 통계 개요

<http://www.census.gov/statab/www/>

지리

면적 (평방킬로미터)	9,631,418
평방킬로미터당 인구 (2006)	32.56

경제

GDP (국내총생산, 2005)	\$11,134,600,000,000
평균 가구소득 (2004)	\$44,389
1인당소득 (2003)	\$23,276
GDP 성장률 (2005)	3.5%
실업률 (2006. 2.)	4.8%
연간실업률 (2005)	5.1%
민간 비농축산부문 고용 (2005)	139,532,000
소매판매액 (2003)	\$3,275,407,000,000
1인당 소매판매액 (2003)	\$11,254
소수민족 소유 기업 (2002)	17.9%
여성 소유 기업 (1997)	30.0%

교육

문자해독률 (유네스코 인간개발보고서)	99%
대학교 수 (교육통계 다이제스트)	4,168
초등학교 수*	61,572
중고등학교 수*	26,541
대학교육 비용 (교육통계 다이제스트)	공립대학 연간 \$9,246
추정치, 2003-2004)	사립대학 연간 \$24,748

* *Characteristics of Schools, Districts, Teachers, Principals, and School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2003-04 Schools and Staffing Survey*, NCES Online

미국의 아이콘

6



시대가 바뀌면서 ‘미국’이라는 제목의 모험담에서 여성, 아메리카 원주민, 흑인의 역할이 점차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단계적으로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기타 민족집단이 미국 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한다.

이 섹션에 어떤 인물을 포함시킬지 논의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아이콘을 간추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많은 주요 인물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미국 역사의 아이콘은 여러 권의 책으로 펴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많지만 지면 제약 때문에 본 지에서는 32명만 소개한다.

eJournal 편집진은 추천하고 싶은 미국의 아이콘과 ‘미국의 아이콘’ 선정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본 지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제안, 조언,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iiptcp@state.gov로 연락주시 바란다. ‘미국의 아이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

이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패턴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 한 가지는 흔히 접하게 되는 이민과 꾸준한 다양성의 확대다. 32명의 인물이 연대순으로 소개되므로 영국계 남성, 즉 건국의 아버지 세대가 ‘미국의 아이콘’의 맨 앞부분을 장식한다.

각되는 인물의 이름과 그 이유를 한두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된다.



© AP/WWP)

미국의 아이콘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 프랭클린은 소박하고 실용적인 지혜의 대가로 존경받는 건국의 아버지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인쇄업자 겸 작가(‘가난한 리처드의 달력’ 저술)로 출발, 발명가이자 과학자가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유능한 외교관으로 긴 경력을 마감했다.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을 탄생시킨 회의에서 핵심적인 막후 역할을 담당했다.



조지 워싱턴(1732-1799) 미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영국과의 독립전쟁 당시 식민지 총사령관으로 종종 ‘건국의 아버지’로 불린다. 버지니아 주의 농민 출신으로 군인으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미국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한 의원으로부터 “전시에 첫째, 평시에 첫째, 동포들의 가슴에서 첫째”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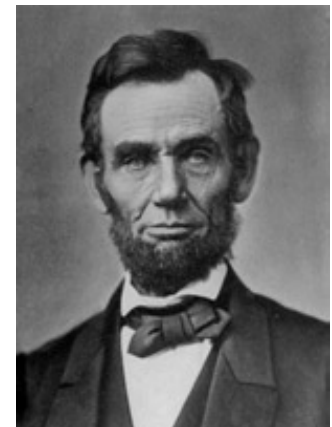
토머스 제퍼슨(1743-1826) 1776년 독립선언서의 기초자로서 “우리는 다음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에 삶, 자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는 것”이라는 문구를 남긴 인물이다. 후에 미국의 제 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확립한 버지니아 주 법률을 기초했으며 버지니아대학교를 설립했다.



미국의 아이콘



사카가위아(1786-1812) 사카가위아는 현 아이다호 주 지역에 살던 레미(Lemhi) 인디언의 젊은 여성으로서 1804-1806년 새로 매입한 광활한 서부를 탐험하던 루이스와 클락을 도왔다. 여러 인디언 방언을 구사해 탐험기간 중 다양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만날 때마다 가이드 겸 통역사 역할을 했다. 탐험대가 레미족과 마주치자 그들로 하여금 말, 보급품, 잠잘 곳을 제공하도록 해 탐험대가 태평양에 도달하는 데 공을 세웠다. 사진은 사카가위아의 후손 중 한 사람인 월로우 잭이 전통의상을 입은 모습이다.



에이브러햄 링컨(1809-1865) 남북전쟁(1861-1865) 중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미국의 단합과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장본인으로 존경받고 있다. 일리노이 주 의원 출신으로 공화당의 대통령 지명을 받아 1860년 노예제 폐지를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결과 11개 남부 주가 연맹을 탈퇴했고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그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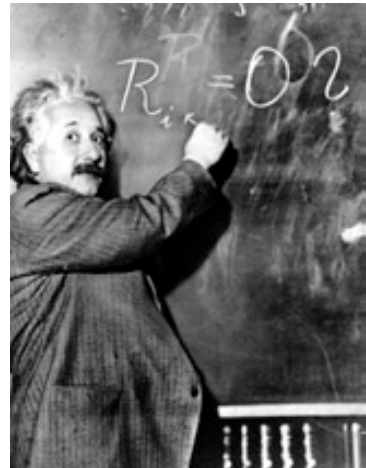
수잔 B. 앤서니(1820-1906) 수잔 앤서니는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 15조(1870)가 해방된 노예의 투표권을 보장하되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일단의 여성을 이끌고 뉴욕 주 로체스터의 투표소로 향했다. 투표 시도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고 후에 국제여성참정권연맹을 조직했다. 미국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 수정조항 19조의 비준(1920년)의 토대를 닦았고 1906년 사망했다.



시팅불(Sitting Bull, 1831-1890) 아메리카 원주민의 마지막 위대한 추장 시팅불은 수족(Sioux)의 지도자로서 비록 무위로 끝나기는 했으나 대평원지역에 인디언 땅을 유지하기 위한 불굴의 노력으로 기억되고 있다. 1800년대 중반 미국 동부로부터 사냥꾼, 군인, 정착자들이 유입되면서 수족의 생계 수단이던 물소 떼가 급격히 감소했다. 1876년 유명한 리틀빅혼 전투에서 조지 커스터 장군이 지휘하던 미국 군대에 대승을 거뒀다.

미국의 아이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1879-1955)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물리적 우주의 본질에 대한 이전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은 상대성이론을 창안했다. 1879년 독일에 태어나 젊은 시절 이미 중요한 개념들을 개발했다. 1933년 나치에 의해 독일에서 추방된 후 뉴저지 주 프린스턴에 있는 고등연구소의 연구원 자리를 받아들였다. 그의 이론은 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랭클린 딜라노 루즈벨트(1882-1945)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낙관주의와 정치적 노련함은 미국이 남북전쟁 후 최대의 국내 위기였던 대공황과 제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33년 대통령직에 올라 12년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 회복과 패전국에 대한 승리를 이끌어냈다. 빈곤층의 영웅이었지만 흔히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그의 경제 사회 개혁정책은 기업가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미국의 아이콘

칼릴 지브란(1883-1931) 가장 영향력 있는 아랍계 미국인 작가 칼릴 지브란은 12세 때 미국으로 이민 온 레바논 태생의 시인이다. 그의 걸작 ‘예언자’는 50년 넘게 베스트셀러의 타이틀을 유지했으며 성경에 이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꼽히곤 한다. 미국 의회는 1990년 워싱턴 D.C.에 칼릴지브란 추모 시 정원(Khalil Gibran Memorial Poetry Garden)을 설립했다. “신은 문을 두드리는 모든 믿는 자를 환영하기 위해 진실에 많은 문을 만들었다”는 말을 남겼다.



엘레노어 루즈벨트(1884-1962)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조카이자 또 다른 대통령 프랭클린 딜라노 루즈벨트의 아내였다.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영부인으로서 남편이 추진하던 뉴딜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와 민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전국적인 정치 집회에 나서 연설하고 여러 신문에 칼럼을 게재하고 정기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최초의 여성이었다. UN 창설을 도왔으며 세계인권선언을 기초, 승인한 위원회의 의장을 맡기도 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이런 글을 남겼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은 인간에 대해 직설적이고 정직한 산문을 쓰는 것이다.” 1차 대전 당시 구급차 운전사로 일했던 헤밍웨이는 1920년대 유럽에서 거주하며 자기 세대의 전쟁 경험을 토대로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와 ‘무기여 잘 있거라’를 발표, 소설가로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소설가 겸 단편소설 작가로 오랫동안 활동하여 195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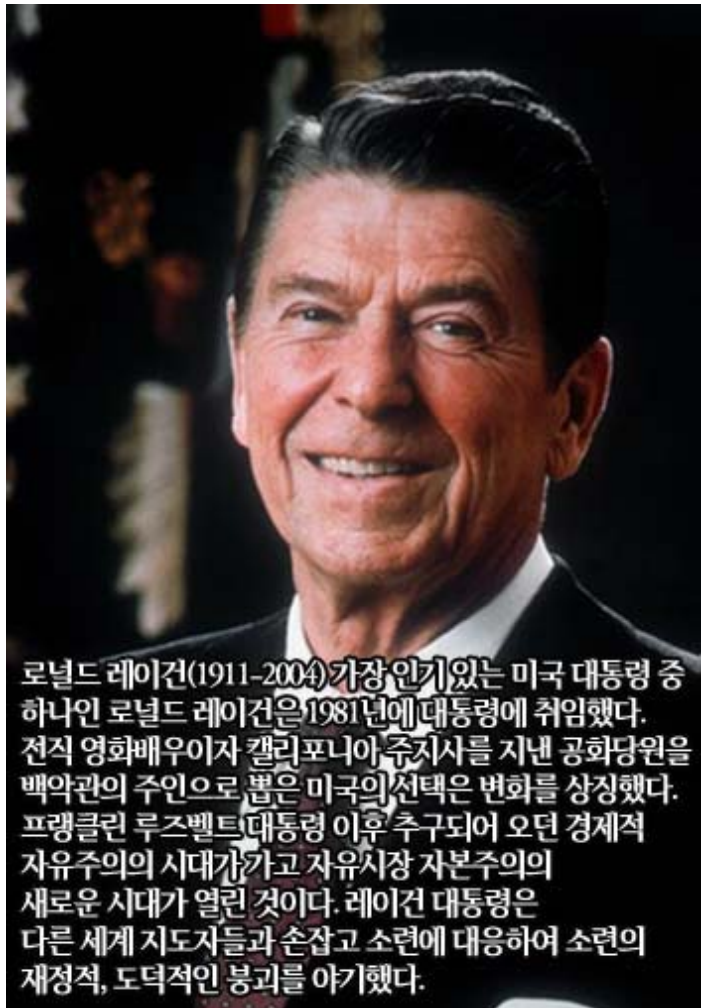


루이 ‘사치모’ 암스트롱(1901-1971) 20세기의 가장 잘 알려진 재즈 음악가 루이 암스트롱은 대가의 경지에 이른 트럼펫 연주와 뚜렷한 색깔의 보컬로 지역적인 음악 전통을 미국적인 예술형태로 승화시켰다. 트럼펫을 재즈에서 없어서는 안될 독주 악기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그의 공이다. 또한 많은 재즈 연주자들에게 핵심적인 요소가 된 ‘스캇송’(가사 없는 보컬)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가 남긴 무수한 곡 중에는 ‘왓 어 윈더풀 월드’, ‘헬로 돌리’, ‘웬더 세인즈 고우 마칭 인’, ‘스타더스트’ 등이 있다.

미국의 아이콘



존 웨인(1907-1979) 존 웨인은 19세기 버팔로 빌의 ‘와일드 웨스트 쇼’가 창조한 카우보이 신화를 이어간 많은 할리우드 영화배우 중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린 배우다. 소도구 담당 보조로 일하던 중 존 포드 감독에 의해 발탁되어 1939년 서부영화 ‘역마차’로 스타덤에 올랐다. 그 후 주로 존 포드나 하워드 혹스가 감독하는 애수 어린 분위기의 서부영화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과묵하고 남성적인 역할을 전문으로 연기했다.



로널드 레이건(1911-2004) 가장 인기있는 미국 대통령 중 하나인 로널드 레이건은 1981년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전직 영화배우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공화당원을 백악관의 주인으로 뽑은 미국의 선택은 변화를 상징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추구되어 오던 경제적 자유주의의 시대가 가고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 손잡고 소련에 대응하여 소련의 재정적, 도덕적인 붕괴를 야기했다.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1917-1963) 미국인들은 아직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있던 3년을 그리움과 함께 회상한다. 그의 리더십, 업적, 우아함, 재치, 카리스마 때문이다.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암살범의 총탄에 쓰러지기 전까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감동을 주었다. 1962년 쿠바에서 소련의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핵무기 경쟁의 종식을 위해 소련과 손을 잡았다.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과 ‘평화봉사단’을 창설했다.

미국의 아이콘

재키 로빈슨(1919-1972) 조지아 주의 소작인 가정에서 태어난 잭 루즈벨트 로빈슨은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로서 미국 프로 스포츠계에 존재하던 인종의 벽을 허물었다. 메이저리그 야구단들은 그의 등번호였던 42번을 영구결번으로 정함으로써 그의 업적을 기렸다. 1949년 내셔널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1962년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마릴린 먼로(1926-1962) 사후 40년이 넘는 지금도 마릴린 먼로는 여전히 할리우드 성적 매력의 화신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녀가 매력적인 외모와 육감적인 몸매만으로 아이콘의 위치에 오른 것은 아니다. 먼로는 1950년대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와 ‘뜨거운 것이 좋아’ 등 코미디영화에서 재능을 입증했다. 대중은 세 번의 결혼 실패를 포함한 먼로의 개인적인 문제들까지도 할리우드 스타의 화려함의 이면에 숨겨진 비극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자르 차베스(1927-1993) 차베스는 ‘할 수 있다’를 모토로 농장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한 멕시코계 노동운동가다. 한 해에 6천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적은 없는 가난한 삶을 살면서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비폭력 투쟁을 전개했다. 단식, 보이콧, 파업 등을 주도해 미국농장노동자연합과 빈곤층을 위한 사회 정의에 대한 폭 넓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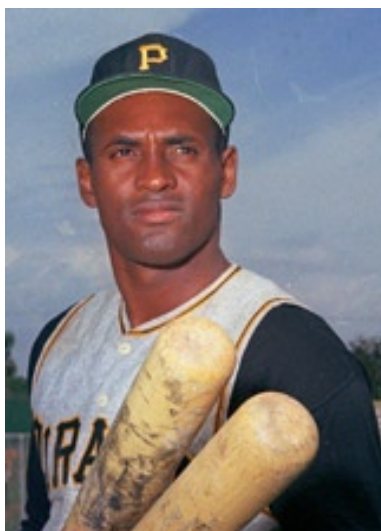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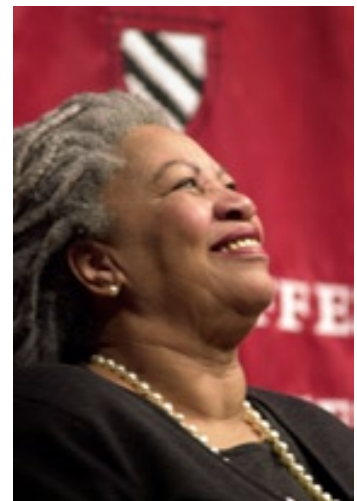


미국의 아이콘



마틴 루터 킹 주니어(1929-1968)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의 민권운동(1957-1968)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목사이자 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비폭력 지도자로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주도했다. 많은 업적 중에서도 특히 1963년 워싱턴행진에서 했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로 언제까지나 기억될 것이다.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며, 암살범의 총탄에 목숨을 빼앗겼지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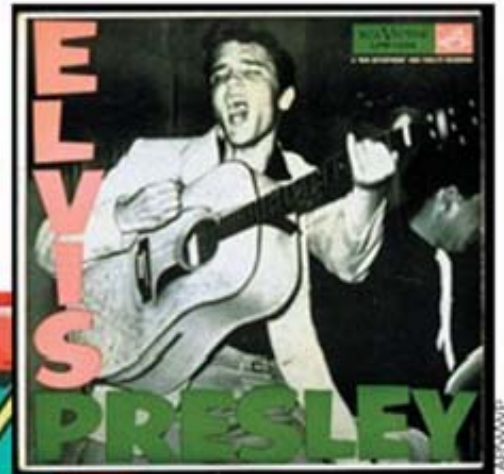
토니 모리슨(1931-)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난 토니 모리슨의 본명은 클리오 앤서니 위포드다. 그녀는 작가 뿐 아니라 편집자, 교사로서도 화려한 경력을 쌓아 왔다. 문학작품으로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1988년에는 소설 ‘빌러브드(Beloved)’로 풀리처상, 1994년에는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국 흑인의 현실을 풍부한 표현으로 사실감 있게 묘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토대로 다른 흑인작가들의 작품 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로베르토 클레멘테(1934-1972) 미 대륙 전역의 팬들은 지금도 푸에르토리코 출신 야구선수 클레멘테가 야구장에서 쌓은 위업과 그의 선행을 깊은 애정으로 기억한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1971년 피츠버그 파이어츠를 이끌고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7차전까지 가는 혈전 속에 월드시리즈를 제패한 것이었다. 같은 해 클레멘테는 월드시리즈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니카라과 지진 피해자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러 가던 중 비행기 추락사고로 비극적으로 사망한 후 히스패닉계 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야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아이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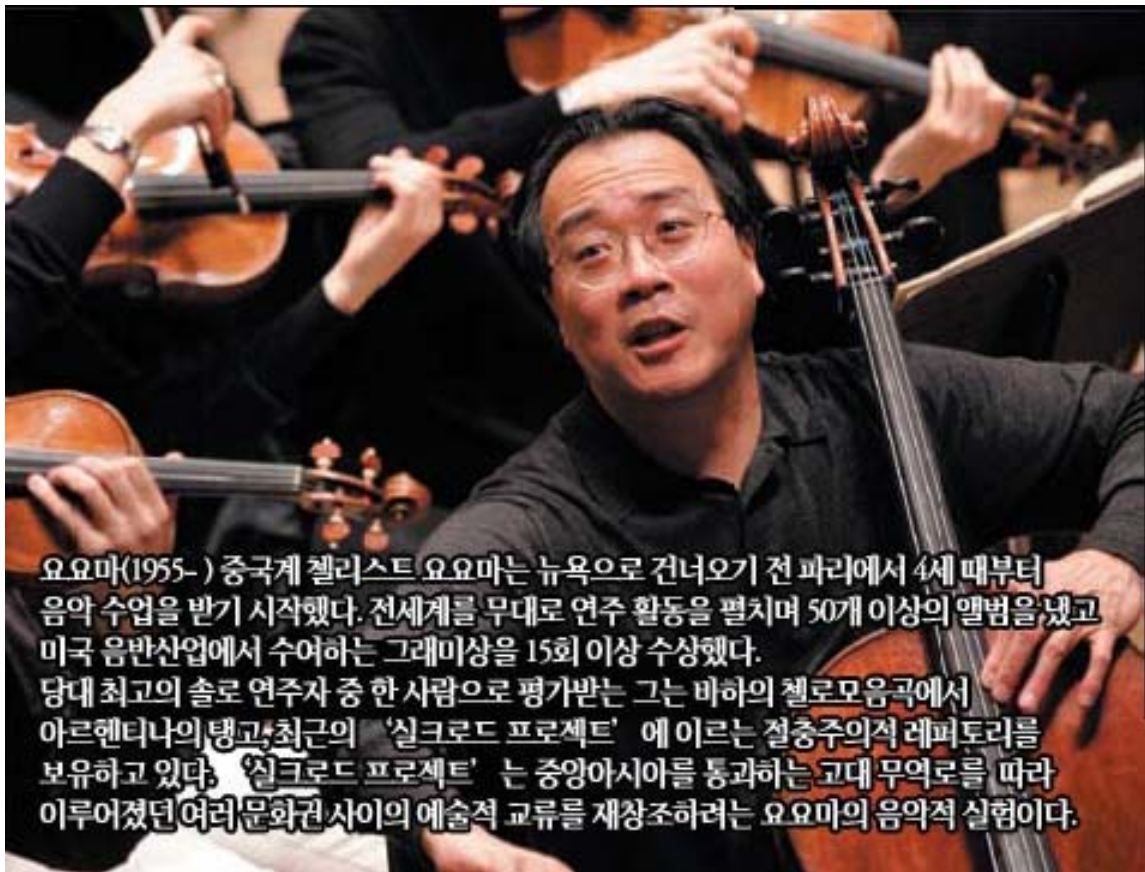
엘비스 프레슬리(1935-1977) 1950년대부터 사망할 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록앤롤 음악을 대중화한 장본인이며 역사상 가장 많은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가수 중 하나다. ‘오리꼬리’ 같은 헤어스타일과 열정적이고 개성 있는 보컬을 특징으로 했으며 마약으로 얼룩진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 그가 사망한 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그를 애도했다. “백인의 컨트리 음악과 흑인의 리듬앤블루스 스타일을 혼합한 그의 음악과 성격은 미국 대중문화의 얼굴을 영구적으로 변화시켰다.”



무하마드 알리(1942-) 알리는 1964년 소니 리스틴을 누르고 헤비급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1981년 은퇴하여 선수 생활을 마감할 즈음에는 춤추는 듯한 발놀림으로 이미 권투라는 스포츠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알리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세계챔피언의 타이틀을 보유한 가운데 이슬람교로 개종했고 베트남전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67년 징집 거부로 기소되어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인 사유로 징집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미국의 아이콘

오프라 윈프리(1954-) 실내 배관설비도 없던 미시시피 농장에서 성장한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TV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하나가 되었다. 19세에 테네시 주 내쉬빌에서 지역 TV 사상 최초의 여성 뉴스 앵커이자 최초의 흑인 뉴스 앵커가 되었다. 1988년 시카고에서 진행하던 토크쇼가 전국 TV에 방영된 후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았다. 제작자와 잡지 편집인으로도 성공을 거뒀다.



요요마(1955-) 중국계 첼리스트 요요마는 뉴욕으로 건너오기 전 파리에서 4세 때부터 음악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전세계를 무대로 연주 활동을 펼치며 50개 이상의 앨범을 냈고 미국 음반산업에서 수여하는 그래미상을 15회 이상 수상했다. 당대 최고의 솔로 연주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는 바하의 첼로모음곡에서 아르헨티나의 탱고, 최근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이르는 절충주의적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고대 무역로를 따라 이루어졌던 여러 문화권 사이의 예술적 교류를 재창조하려는 요요마의 음악적 실험이다.

미국의 아이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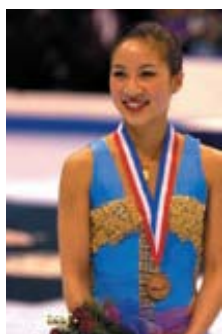
미키 마우스(1928-)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영화 스타 중 하나인 미키 마우스는 최초의 유성 만화영화 ‘스팀보트 윌리’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국토 횡단 철도 안에서 만화가 월트 디즈니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으며 엔터테인먼트 제국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일등공신이다. 수백 가지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화 ‘판타시아’를 통해 미키의 익살이 전세계인에게 어필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후에 화 잘 내는 도널드 덕과 실수투성이 구피 등 많은 캐릭터들이 선보였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선두주자는 역시 미키 마우스였다.

타이거 우즈(1975-) 최근의 가장 위대한 프로 골프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엘드릭 (타이거) 우즈는 미 육군 중령 출신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제는 고인이 된 아버지의 친구이자 군인이었던 한 베트남인을 따라 어린 시절 ‘타이거’라는 애칭을 얻었다. 16세에 처음 프로대회에 참가했다. 2001년 두번째 마스터즈대회 우승과 함께 동시에 4대 메이저 골프대회의 우승 타이틀을 모두 보유한 역사상 최초의 골퍼로 기록되었다.

스티븐 잡스(1955-) 애플컴퓨터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최고경영자 스티븐 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으며 대학에는 잠시 밖에 다니지 않았다.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1976년에 애플 컴퓨터를 설립했다. 1986년 회사를 떠나 독립했으나 1996년 애플 컴퓨터가 그의 새 사업체를 인수했다. 애플의 MP3 플레이어 iPod와 ‘토이스토리’ 등 픽사스튜디오 영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둠에 따라 혁신적인 사업가로서 역사 속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했다.



윈튼 마살리스(1961-) 윈튼 마살리스는 그의 세대가 배출한 가장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자 트럼펫 연주자다. 뉴올리언즈에서 성장했으며 줄리어드음대 진학을 위해 1978년 뉴욕으로 온 후 클럽에서 연주 활동을 시작했다. 그 후 드러머 아트 블레이크가 이끌던 작은 밴드와 연주 여행에 나섰다. 현재는 링컨센터 재즈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서 전세계를 돌며 연주와 작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음악평론가 스탠리 크라우치는 “마살리스는 동료 음악인들과 청중에게 음악의 정수를 전달하는 것을 진정으로 좋아한다”고 평했다.



미셸 관(1980-)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5회 우승과 9회 전미 챔피언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미셸 관보다 더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없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관(부모는 중국 태생)은 다섯 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다. 쇼트 및 롱 프로그램에서 대담한 도약과 넘치는 예술성으로 열광적인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올림픽에서만은 운이 없었다. 은메달과 동메달은 땀지만 2006년 동계올림픽에서 부상으로 기권했다.

주요 사건 연표



'교회에 가는 청교도들'. 조지 브라우틴이 1867년 그린 그림으로 초창기 영국 정착민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AP/WWP, 미국국립미술관

1565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세인트 오거스틴(플로리다 주) 건설

1607 제임스타운(버지니아 주) 정착

1620 청교도들 매사추세츠에 착륙 (메이플라워 맹약)

1775-83 독립전쟁

독립선언서 1776

연합규약 1777

헌법 1788



주니어스 브루투스 스타스가 1856년 그린 '헌법제정회의에서 연설하는 조지 워싱턴'은 1812년 전쟁 하의 말미 절정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의 부하들이 13개의 별이 그려진 대륙군 깃발을 게양하고 있다. North Wind / North Wind Picture Archives

1803 루이지애나 매입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1803년 미국의 면적은 사실상 두 배로 확장되었다. 노스 윈드/노스 윈드 픽처 아카이브

1812-14 1812년 전쟁

먼로주의 1823



전국여성당 간부들이 헌법 수정조항 19조의 비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수잔 B. 앤서니의 말이 적힌 배너를 들고 있다. AP/WWP

1846-48 멕시코전쟁

1846 영국과의 조약으로 위도 49도 이하 '오레곤컨트리' 병합

1861-65 남북전쟁

1863 노예해방선언

1865-77 재건

1898 미서전쟁

1917-18 제 1차 세계대전

1919 여성 참정권 부여

주요 사건 연표

1929-40 대공황

1941-45 제 2차 세계대전

1947 냉전 개시, 트루먼 독트린

1948 마셜 플랜

1950-53 한국전쟁

D데이인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는
미군. AP/WWP, 미 육군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 1954

쿠바 미사일 위기 1962

워싱턴 행진 1963

1963년 8월 28일
워싱턴행진에 참가한
마틴 루터 킹 목사
(왼쪽에서 세번째).
AP/WWP



1964년 테네시 주 클린턴에서 함께 공부하는
흑인과 백인 고등학생들. AP/WWP

1965-73 베트남 전쟁



1965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1969년 7월 20일 달 탐사
중 찍은 동료 비행사
에드윈 '버즈'
올드린의 사진.
AP/WWP,
미 항공우주국



1969 인류 최초의 달 착륙

1989 냉전 종식

1987년 6월 12일
독일 서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선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수상(오른쪽).
AP/WWP



2001 9/11 테러 공격

미국 지역 여행

미국 생활은 50개 주 전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지역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이 광활한 나라의 복잡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무부 전자저널을 담당하는 해외서비스 담당관 리처드 허커비가 미국에 어떤 지역이 있으며 지역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한다. 본 기사는 프랑스, 한국, 코소보에서 있었던 그의 발표 내용에서 발췌된 것이다.

미국 내 지역 간 차이를 화제에 올리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미국인이 하나의 사고방식, 하나의 음식문화, 하나의 대화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한 ‘획일적’ 문화로 통합되었다는 견해다. 미국에서 맥도날드, 버거킹, 피자헛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어디에 살건 다들 것이 거의 없는 월마트, 잭, 풋로커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 거의 누구나 똑 같은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볼 수 있고 동일한 대중시장용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적 차이가 현실이 아니라 잘못된 통념임을 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끈질긴 지역문화



블렌하임 진저에일은 네 종류로 시판되고 있다.
올드 #3 매운 맛, #5 덜 매운 맛, #9 다이어트,
#11 진저비어 - <http://theacf.com/blenheim/>

우선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전국적으로 많은 음식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내 어디에서건 동일한 브랜드의 냉동피자를 살 수 있다. 알래스카에서 플로리다에 이르기까지 시리얼, 캔디바, 기타 다수 품목이 똑 같은 패키지에 담겨 진열대에 놓인다. 일반적으로 신선과일과 채소의 다양성과 품질 역시 주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 반면 허시퍼피(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의 일종)나 그리츠(갈아낸 옥수수를 끓여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한 것) 등 음식의 경우 매사추세츠나 일리노이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조지아나 기타 남부 주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코카콜라, 펄시, 세븐업은 어디에나 있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외 지방에서 블렌하임 진저에일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시카고 피자(빵이 두꺼운 시카고 전통 피자)는 뉴욕 피자과 사뭇 다르다. 나는 뉴올리언즈에서 악어고기 튀김을 먹어 봤지만 미국 내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 요리를 보지 못했다. 타코벨의 멕시코식 음식은 어느 지방에서나 먹지만 텍사스의 텍스맥스 요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멕시코 음식과는 매우 다르다. 또한 많은 주에서 그 지방만의 독특한 핫도그를 즐긴다.

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서부의 산기슭에서 자랐다. 식탁에는 매끼 감자와 빵이 올라왔다. 대학 졸업 후 사우스 캐롤라이나 해안 근처의 로우 컨트리에서 첫 직장을 구한 나는 끼니마다

쌀 요리가 거의 빠지지 않는 것에 상당히 놀랐다. 그곳에서는 쌀을 요리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 끓이는 대신 찌서 밥을 지었다. 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북동부의 피디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조각 낸 닭고기와 굵게 갈아낸 후춧가루를 쌀에 넣어 요리하는 치킨보그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음식에 있어 지역적 차이는 확실히 존재한다. 다른 지역 사이에서 뿐 아니라 작은 주 내에서조차 말이다.

또 다른 차이는 언어다. 일반적으로 미국식 영어가 표준이기는 하지만 어느 지방을 가느냐에 따라 말투는 달라진다. 남부지방 사람들은 말을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어 ‘서던 드롤(남부사람 특유의 느린 말투)’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중서부인들은 ‘a’를 평설 모음으로 발음하며 유대계 인구가 많은 뉴욕시 방언에는 이디시말(절질 끌거나 끌어당긴다는 뜻의 ‘schlepp’, 스낵을 뜻하는 ‘nosh’ 등)이 많이 쓰인다. 보스턴이나 브루클스 토



깊이가 깊고 넉넉한 토핑의 전통 '시카고 피자'

사진제공: 우노 시카고 그릴

박이들은 확연한 역양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독자 여러분도 아마 남부 캘리포니아의 십대들이 사용하는 속어의 한 형태인 '밸리 토크'에 대해 알 것이다. 특정 민족집단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명과 단어에서도 이민자들의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위스콘신 주의 라파예트 카운티, 루이지애나 주의 베턴루지, 사우스 다코타주의 운디즈니, 캘리포니아 주의 산타크루즈 등이 몇 가지 예다. 지역에 따라 어휘에도 차이가 있다. 대학원 재학 시절 한 번은 내가 가스레인의 '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온 동료 학생 중 누구도 내가 '버너(가스레인의 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서부 언어에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단어(이 중 많은 단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가 수도 없이 많으며 중서부와 펜실베이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독일어 단어가 여전히 많이

쓰인다. 1985년에 나온 영화 '위트니스'를 본 적이 있다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방식이나 시각 같은 좀더 미묘한 측면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드러난다. 해외 사건에 대한 신문의 보도 방식이 한 예다. 대서양을 접하고 있는 동부의 일부 신문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서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반면 서부 해안 지역에서는 동아시아와 호주의 사건이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미국인들은 사생활의 중요성, 개인주의, 개인적 독립성 등에 대한 믿음을 비롯하여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이 스스로가 자기 지역과 관련된 특정한 특색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뉴잉글랜드의 독립성, 남부의 친절, 중서부의 건전함, 서부의 여유 등이 그 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형성되는 데 작용한 지리적 특징과 역사적 영향(정착 양상 등)에 대해 살펴본다.

그러나 미국의 각 지역을 둘러보기 전에 국가 전체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토를 가진 나라다. 인구 규모도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다.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자면, 미국 횡단에는 자동차로 약 5일이 소요된다. 물론 하와이나 면적이 가장 넓은 주 알래스카를 제외했을 때 얘기다.



피데오 콘 폴로 한 접시에는 쌀밥, 핀토빈으로 만든 리프라이드빈, 양상추, 토마토, 양파가 들어간다. 전형적인 텍스-멕스 스타일의 요리다. AP/WWP

지역

미국의 지역을 구분하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뉴잉글랜드,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 남부 지역, 중서부 지역, 서부 지역 등 5개 지역으로 국토를 나누는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분할법을 사용한다. 이 같은 지역 구분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는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며 첨부된 지도에서 보듯이 지역적 특징은 인접한 지역의 특징과 뒤섞이는 경우가 많다. 언급된 도시와 문인 등은 결코 모든 도시와 작가를 총망라한 것이 아니며 단지 개괄적인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저널 말미에 소개되는 인터넷 자료 목록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뉴 잉글랜드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주요 도시: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

문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 랄프 왈도 에머슨, 나다니엘 호손, 에밀리 디킨슨, 해리엇 피처 스톤, 실비아 플라스, 로버트 프로스트, 리처드 루소, 러셀 뱅크스



버몬트 주 이스트 몽펠리에에 있는 올드 미팅 하우스 옆에서 단풍잎이 물들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장 작은 지역인 뉴잉글랜드는 비옥하고 광활한 농토나 온화한 기후 같은 자연 환경의 혜택은 누리지 못했지만 미국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7세기부터 19세기에 들어서까지 뉴잉글랜드는 미국의 문화·경제적 중심지였다.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최초의 유럽인들은 보수적인 영국 신교도들이었고 이들 중에는 종교적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다.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당면 사안을 논의하는 ‘타운 미팅’(교회 상급자들이 열던 회의에서 파생)의 전통이 이들 정착민들로부터 시작되어 이 지역의 특징적인 정치 형태로 자리잡았다. 회의에서는 토지를 가진 남성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타운미팅은 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했다. 오늘날에도 타운미팅은 뉴잉글랜드 내 다수 지역사회에서 존속하고 있으며 물론 여성도 참여한다. 주민들은 지역 여건 상 남부와 같은 대농장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1750년 경 다른 생업으로 눈을 돌렸다. 그 결과 조선, 어업, 무역이 뉴잉글랜드의 주요 산업이 되었다. 사업적인 면에서 뉴잉글랜드인들은 근면성, 판단력, 검약성, 독창성이 뛰어나다는 평판을 얻었다. 이런 특성은 산업혁명의 물결이 미국을 휩쓸던 19세기 전반에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에는 의류, 소총, 시계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런 신규 사업의 운영자금은 대부분 미국의 금융 중심지였던 보스턴에서 조달되었다.



뉴햄프셔주 하노버에 있는 다트머스컬리지에서 학생들이 잔디 위를 걸어가고 있다. 1769년 설립된 다트머스는 사립 인문대학으로서 아이비리그에 속한다.

이 지역에서 탄생한 역사적인 문학작품으로는 소로의 ‘월든’ 또는 ‘숲속의 생활’이 있다. 또한 시인 에밀리 디킨슨과 로버트 프로스트가 배출되었으며 노예해방운동의 기폭제로 일컬어지는 ‘툼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해리엇 비처 스톤 역시 뉴잉글랜드 출신이다.

이후 뉴잉글랜드의 기존 산업은 대부분 생산 비용이 더 저렴한 다른 주나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초소형 전자제품, 컴퓨터, 생명공학 산업이 성장하면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났다. 교육, 첨단기술, 금융 서비스, 관광, 의학이 계속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언제나 보스턴심포니 오케스트라, 보스턴미술관 등 다양한 예술기관이 주민들의 활기찬 문화생활을 뒷받침했다. 교육 역시 이 지역이 보유한 가장 풍부한 유산 중 하나다. 하버드, 예일, 브라운, 다트머스, 웰슬리, 스미스, 마운트 홀요크, 윌리엄스, 암허스트, 웨슬리안 등 뉴잉글랜드에 위치한 경쟁한 일류 대학(4년제 대학과 칼리지)의 면면은 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한다.



블록 아일랜드 북등대는 로드아일랜드 주 뉴 쇼어햄에 있다. 이 지역은 해마다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매사추세츠 주 로웰에 있는 부트밀스는 한창 때 연간 99,500km의 직물을 생산하던 공장으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상점 주인 피터 월쉬가 메인 주 스카버러에 있는 수조에 서 막 잡은 바닷가재를 들어 보이고 있다. 메인 주의 바닷가재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뉴잉글랜드 초기 정착자 중 일부가 서부로 이주하는 대신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동유럽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흘러 들었다. 인구 구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뉴잉글랜드의 고유 정신은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미국 시골 마을의 전형이 된 단순한 목조 주택과 흰 교회 첨탑, 대서양 해안을 수놓는 전통적인 등대의 모습에서 뉴잉글랜드인들의 숨결이 느껴진다.

뉴잉글랜드에서는 클램 차우더, 메인 랍스터, 버몬트 메이플 시럽, 칠면조, 보스턴 베이컨드 빈즈, 보스턴 크럼파이 등 음식이 유명하다.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매릴랜드

주요 도시: 뉴욕 주 뉴욕,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매릴랜드 주 볼티모어

문인: 워싱턴 어빙, 에드가 앨런 포, 월트 휘트먼, 게르트루드 스타인, J.D. 셀린저, 버나드 맬러머드, 앤 타일러, 오거스트 월슨



펜실베이니아 주 이리에서 온 돛대 2개의 범선 나이아가라가 뉴욕항의 자유의 여신상 옆을 지나고 있다.

뉴 잉글랜드가 19세기 미국의 확장에 두뇌와 자금을 제공했다면 중부 대서양 연안 주들은 ‘근육’의 역할을 했다. 이 지역 최대 주인 뉴욕과 펜실베이니아는 철, 유리, 철강 등 중공업의 요지로 발전했다.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에는 뉴잉글랜드보다 더 다양한 구성의 정착자들이 자리잡았다. 오늘날 뉴욕 주가 있는 로우어 허드슨 강 계곡은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개척했고 스웨덴인들은 델라웨어, 영국 가톨릭 신자들은 매릴랜드, 영국 신교의 한 종파인 프렌드(퀘이커) 교도들은 펜실베이니아에 정착했다. 후에 이 모든 정착 지역이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됐지만, 대규모 독일인 집단을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초기 정착자들은 대다수가 농부와 상인이었으며 이 지역은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뉴잉글랜드와 남부 식민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는 식민지 대표들로 구성되어 독립전쟁을 주도한 대륙회의의 결성지였다. 1776년의 독립선언서와 1787년의 미국 헌법 역시 필라델피아에서 탄생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는 미국 최초의 수도였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차로 중 하나인 뉴욕시 타임스퀘어를 자동차들이 통과하고 있다.



어부 조 스톤이 매릴랜드 주 솔로몬스에 있는 파퓁센트강에서 저인망으로 고기를 잡던 중 굴을 채에 걸러내고 있다.

이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은 미국 육군사관학교가 뉴욕 웨스트포인트에, 해군사관학교가 매릴랜드 아나폴리스에 자리잡고 있는 것에서 드러난다. 또한 뉴욕항의 엘리스섬은 20세기 초 미국으로 건너 온 수백만 이민자들에게 미국으로의 첫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중공업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면서 허드슨 강과 델라웨어 강 등 하천은 없어서는 안될 수송로의 임무를 떠맡게 되었다. 허드슨 강이 있는 뉴욕, 델라웨어 강이 있는 필라델피아, 체사피크 만에 면한 볼티모어 등 수로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극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뉴욕은 지금도 미국 최대의 도시이자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다.



매릴랜드 주 아나폴리스는 주도(州都)이자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곳이다. 우측 아래에 보이는 것이 주지사 관저, 왼쪽에 보이는 것이 1692년 설립된 세인트앤스 성공회 교회다. 현재 건물은 1859년에 완공되었다



스쿨킬강을 따라 건설된 페어몬트 워터웍스 위로 펜실베이니아 주의 필라델피아미술관이 보인다.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로 1812년 건설된 페어폰트 워터웍스는 이제 복구된 역사 유적으로서 관광객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뉴욕의 문화단체 중에는 메트로폴리탄오페라극장, 뉴욕시티오페라단, 뉴욕시티발레단,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구겐하임미술관 등이 있다. 이 지역에서 배출한 위대한 문인으로는 단편소설가이자 시인인 에드가 앨런 포, 시인 월트 휘트먼, 극작가 아서 밀러, 생존해 있는 소설가 존 업다이크와 필립 로스 등이 대표적이다.

뉴잉글랜드와 마찬가지로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 역시 중공업의 외부 유출을 경험했고 이 자리에 제약과 통신 등 다른 산업이 발달했다.

지역 특유의 음식으로는 맨하탄 클램 차우더, 매릴랜드 크랩, 필리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 치킨팟 파이, 애플 사이다, 뉴욕 베이글, 뉴욕 스타일 치즈케이크 등이 있다.

남부 지역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테네시,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앨라배마, 미시시피, 아칸소, 루이지애나, 텍사스

주요 도시: 조지아 주 애틀랜타,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노스 캐롤라이나 주 샬롯,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테네시 주 내쉬빌, 텍사스 주 휴스턴

문인: 윌리엄 포크너, 토마스 울프, 로버트 펜 워렌, 마가렛 미첼, 테네시 윌리엄스, 트루만 커포티, 플래너리 오코너, 앨리스 워커



내쉬빌 도시에 위치한 테네시 주 의사당은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온 정착자들에 의해 1779년 세워졌다.

뉴 잉글랜드처럼 남부 지역에도 영국 신교도들이 가장 먼저 정착했다. 특히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방으로 프랑스 위그노(프랑스 신교도)들이 유입되었고 물론 루이지애나에도 많은 프랑스인들이 정착했다. 그러나 뉴잉글랜드 정착자들이 영국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던 반면 남부인들은 영국식 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여러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했으며 미국 1-5대 대통령 중 4명이 버지니아 주 출신이었다.



미시시피 주 내치즈 근처에 있는 스탠튼홀은 남북전쟁 전의 남부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수백 채의 대농장 가옥 중 하나로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묘사되었던 생활 방식의 자취를 보여준다.



2005년 10월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핏치고 간 상처에 대한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프렌치쿼터에 있는 식당 ‘케이폴스 루이지애나 키친’ 앞에서 스토리빌 스톰퍼스 취주악단이 연주하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열린 2004 스폴레토축제 개막식에서 페니 파빌리온 단원들이 공연하고 있다.

바위가 많은 뉴잉글랜드 주, 가족단위 농장이 대세를 이뤘던 중부 대서안 연안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남부 주들은 대규모 농장이나 플랜테이션으로 조직화된 농업이 발전했다. 이런 대농장에서는 면화나 담배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작물을 재배하여 북부와 대서양 연안 지역 전체에 내다 팔았다. 이 노동력 수요를 채우기 위해 농장주들은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노예에 의존했다. 그러나 노예제도는 북부와 남부를 분열시키는 논쟁적인 사안으로 발전했다. 북부인들에게 노예제는 부도덕한 행위였고 남부인들에게는 생활방식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1861년 남부 11개 주가 연방을 탈퇴, 남부연합이라는 별도의 국가를 결성했다. 이러한 분열은 남북전쟁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남부연합의 패배와 노예제 종식으로 귀결되었다.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



CNN센터 옥상에서 바라본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모습. 센테니얼 올림픽공원 뒤로 높은 스카이라인이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부인들은 이런 분열을 극복했고 20세기 말이 되자 ‘새로운 남부’의 기치 아래 이전과 다른 지역적 자부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과거에 국내 정치 무대에서 남부 지역이 가졌던 영향력도 회복했다. 1976년 이후 남부 출신이 아닌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뿐이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 출신이고 조지 부시와 아들 부시 대통령 역시 텍사스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며 빌 클린턴은 아칸소 태생이다. 또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매년 스폰데토 축제를 열고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1996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대규모 국제행사도 유치하고 있다.

오늘날 제조업, 은행업, 운수업이 발달한 남부 지역에서는 전역에 걸쳐 고층 빌딩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온화한 기후 덕분에 남부는 미국 내 타 지역과 캐나다에서 몰려든 퇴직자들의 천국으로도 각광 받고 있다. 퇴직한 사람이건 그저 높은 삶의 질을 원하는 사람이건, 이 ‘선벨트(미국 남부 온난 지대)’ 주에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은 비즈니스의 기회와 남부의 전통적인 스타일 및 풍미가 현대적으로 공존하는 이 곳만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

남부 지역은 전설적인 문학적 유산을 자랑한다. 이 지역의 문학은 미시시피에서의 삶에 대한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 플래너리 오코너의 단편소설 등으로 20세기에 특히 빛을 받았다.

지역 특유의 음식으로는 서던 프라이드치킨, 그리즈, 바비큐, 루이지애나에서 즐기는 프랑스 및 크리올 요리가 있다.

중서부 지역



오하이오, 미시건, 인디애나, 위스콘신, 일리노이,
미네소타,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캔자스, 네브라스카, 미주리, 오클라호마

주요 도시: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 일리노이 주 시카고,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세인트폴,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문인: 마크 트웨인, 칼 샌드버그, 어니스트 헤밍웨이,
토니 모리슨, 마야 앤젤루, 랭스톤 휴스, 싱클레어 루이스,
제인 스마일리, 조나단 프란젠



중서부 지역의 중심지인 일리노이 주 시카고의 스카이라인. 미국 프로 풋볼
팀 시카고 베어스의 홈구장인 솔저 필드(오른쪽 아래)가 보인다.



미주리 주 하니발에 있는 이 거리는 마
크 트웨인의 톰 소여 이야기에 등장해
유명해졌다.

중 서부는 문화적인 교차로다. 1800년대 초반부터 동부인들이 더 나은 농경지를 찾아 이곳으로 옮겨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인들도 동부 해안 지역을 거치지 않고 내륙으로 바로 이주해 왔다. 최
근 수 년 동안 이민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다원화되는 추세다. 아메리카 원주민 인기도 많다.
비옥한 토지 덕택에 농부들은 밀과 옥수수 등 곡물을 넉넉하게 생산할 수 있었고, 오래지 않아 이 지역은 미
국의 ‘곡창지대’로 불리게 되었다.



사우스다코타 주 데 스메 부근에 있는 잉겔스 홈스테드는 밀밭, 가축우리, 농장가옥과 함께 중서부 지역의 전형적인 풍경을 보여준다.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레이크 스트리트/미드타운 역으로 경철도 열차가 진입하고 있다.

대부분 평지에 기름진 토지를 가진 덕분에 중서부 지역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밀밭이 형성되었다. 미시시피 강은 정착자들이 새로운 터전으로 이동하고 먹거리가 시장으로 수송되는 경로로서 지역의 생명줄 노릇을 했다. 미주리 태생으로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작가 사무엘 클레멘스는 이 강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이제는 고전이 된 두 편의 소설(‘미시시피 강의 생활’과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썼다. 그 밖의 저명한 작가로는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토니 모리슨, 시인 칼 샌드버그, 랭스톤 휴스, 마야 앤젤루, 그리고 미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싱클레어 루이스를 꼽을 수 있다.

중서부인들은 개방적이고 친절하며 솔직하다는 평을 듣는다. 지역 중심지는 미국 3대 도시인 일리노이 주 시카고다. 북미 5대호에 면한 시카고항은 미국과 세계 각지로 철도와 항공 운송을 연결하는 요지다. 시카고 중심부에는 세계 최고(最高) 건물인 높이 447미터의 시어스 타워가 우뚝 솟아 있다. 다른 주목할 만한 도시들도 있지만 이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아마도 상징적인 소도시들일 것이다. 중서부 지역은 때로 ‘미국의 심장부’로 일컬어진다.

시카고식 피자과 지역의 유산을 반영하는 독일, 스칸디나비아, 동유럽 요리가 대표적이다.

서부 지역



뉴멕시코, 애리조나, 콜로라도, 와이오밍, 몬태나, 유타,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이다호, 오레곤, 워싱턴, 알래스카, 하와이

주요 도시: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콜로라도 주 덴버,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애리조나 주 피닉스,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 뉴멕시코 주 산타페, 워싱턴 주 시애틀, 하와이주 호놀룰루

문인: 존 스타인벡, 레이몬드 카버, 제임스 웰치, 월리스 스테그너, 코맥 맥카시, 레슬리 마몬 실코



애리조나 주 투손 부근에 있는 샌 자비에르 델 박 교회는 1797년 완공되었다.



애리조나 주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에 비가 내린 후 호피 포인트에 무지개가 걸려 있다.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서부를 마지막 미개척지로 여겨왔다. 그러나 사실 캘리포니아는 대다수 중서부 주보다 더 긴 정착 역사를 갖고 있다.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몇 해 전 스페인의 성직자들이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선교구를 세웠다. 19세기에는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이 동부에 있는 다른 여러 주보다 앞서 연방에 가입했다. 북부의 울창한 삼림에서 남부 사막지대에 이르기까지 서부는 장대한 스케일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알래스카 타키티나에서 바라본 맥킨리산. 북미 최고봉 맥킨리산의 등반에 나선 산악인들은 이 곳에서 카힐트나 빙하로 향하는 경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1858년 건설된 ‘높은 도시(Mile High City)’, 콜로라도 주의 덴버는 이제 2백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로 통신, 공공설비, 운수산업이 발달했다.



워싱턴 주 시애틀의 스카이라인을 담은 사진으로 1962년 시애틀 세계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스페이스니들(왼쪽)이 보인다.

웅장한 그랜드캐년이 애리조나 주에 있고 황량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서부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한 모뉴먼트밸리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나바호족이 사는 보호구역 내에 유타 주와 애리조나 주에 걸쳐 펼쳐져 있다. 이 지역에는 호피족, 주니족, 푸에블로족, 아파치족 등 수십 개의 다른 인디언 보호구역도 있다.



주민 수가 거의 150만 명에 달하는 애리조나 주 피닉스는 미국의 5대 도시로 1년 중 평균 325일이 맑은 날이다.



가워와 할리우드대로 교차로를 내려다보는 언덕받이에 유명한 ‘할리우드’ 표지가 있다.



영화 ‘미지와 조우’에 등장한 데블스 타워는 와이오밍 주에 있다.

다른 볼 만한 곳으로는 와이오밍 주의 데블스 타워(영화 ‘미지와 조우’에 등장)와 세계 최대의 천연 돌다리인 유타 주의 레인보우 브리지를 들 수 있다.

서부 지역은 대부분 인구밀도가 낮으며 요세미티, 옐로우스톤, 세쿼이아, 데스밸리 등 광활한 국립공원 내의 수백만 헥타르에 이르는 미개발지를 정부가 소유, 관리한다. 미국인들은 낚시, 캠핑, 하이킹, 보트타기, 방목, 벌채, 채광 등 오락적·상업적 활동에 이런 땅을 활용한다.

서부 지역의 남부 일부는 한때 멕시코 영토였다. 이 땅은 1846-1848년의 멕시코-미국전쟁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 이 지역에서는 멕시코적 유산이 아직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멕시코계 인구 비율도 높다.



콜로라도 주 볼더시 부근에 있는 허버담은 네바다 주와 애리조나 주 사이에 있는 콜로라도강에 높이 221미터, 길이 379미터 규모로 건설되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을 따라 명명되었으며 주된 수력 발전 공급처로 425,000헥타르 이상의 미국과 멕시코 농지에 물을 대고 있다.

강을 비롯한 강의 댐, 센트럴 애리조나 프로젝트 등 수로를 바탕으로 오늘날과 같은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뉴멕시코의 산타페와 타오스는 예술 중심지로서 특히 회화, 조각, 오페라로 명성을 얻고 있다. 먼 곳에서부터 끌어온 물은 또한 다양한 농산물의 경작을 가능케 해 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증대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관광객을 위해 공연하는 어린 훌라 무용수들.

인구 구성의 다양성 때문에 멕시코, 중남미, 아시아 음식 등 매우 다양한 음식 문화가 특징이다. 물론 이 지역 명소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먼스 워프’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 2대 도시로 발전한 로스앤젤레스는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본거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로스앤젤레스와 산 호세 부근의 ‘실리콘밸리’의 성장에 힘입어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주가 되었다. 지역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애리조나가

따뜻한 기후로 퇴직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서 남부주들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네바다의 라스베이거스는 세계적인 도박 중심지 중 하나다.

물 부족으로 시달리는 서부 지역에서 한때 소도시에 불과했던 애리조나 피닉스, 뉴멕시코 앨버커키 등은 콜로라도



뉴멕시코 주 산타페에서 활동하는 산타페오페라단 단원들이 벨리니의 오페라 ‘몽유병의 여인’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고 있다.

미국의 최북단에 위치한 알래스카는 그 수는 적지만 강한 주민들이 사는 광활한 땅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알래스카의 자연은 국립공원과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보존되고 있다. 하와이는 아시아계 주민 수가 유럽계보다 많은 유일한 주다. 또한 1980년대부터 주로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아시아인들이 대거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고 있다.

서부인들은 특유의 포용력으로 유명하다. 타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서부로 이동해 온 주민들이 많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탓에 대인관계에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공존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서부 지역 경제는 다양성이 뚜렷하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농업과 첨단기술 제조업이 함께 발달했다.

서부 지역 출신으로 가장 저명한 작가는 대표작 ‘분노의 포도’를 쓴 존 스타인벡과 오키와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던 케인 그레이가 있다. ‘붉은 샬비어의 기수들’ 등 그의 소설은 이상화된 구 서부의 모습을 그렸다.

다양한 미국인, 하나의 미국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은 큰 나라다. 뉴잉글랜드와 북서부 지역의 바위투성이 해변, 남동부 해안 · 캘리포니아 · 하와이의 모래사장, 동서부 해안 부근의 산악지대, 중부의 광활한 평지, 남서부의 거대한 사막, 알래스카의 동토지대, 하와이의 화산섬 등 지리적인 다양성도 뚜렷하다. 지형 때문에, 그리고 4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지역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여건 속에 정착했기 때문에 각 지역은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국이 매우 큰 국가이고 지역적 다양성이 크지만 스스로를 ‘미국인’으로 칭하는 이들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유사성이 더 많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미국의 동전에는 ‘다수로부터의 하나(E pluribus unum)’라는 motto가 새겨져 있고 이것은 미국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상인 것이다.

텍사스 주 상원의원 케이 베일리 허치슨은 최근 한 연설에서 “다른 많은 국가에서 국가적 정체성은 부모가 누구인가 또는 어느 지역에서 자랐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진정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어디 출신인가보다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와 더 큰 관련이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들에게는 다른 모든 미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자유가 주어진다. 부모가 미국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족보를 뒤져 독립전쟁에 참전한 조상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문제되지 않는다. 미국인이 된다는 것의 열쇠는 자율의 가치,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특정한 근본적인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93개 언어가 사용되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세계를 만나자(Meet the World)’ 축제 기간 동안 설치된 한인 부스.

이민자의 눈에 비친 미국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르다.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다.” 폴 피크먼, 벨로루시 출신의 다큐멘터리 제작자. 현재는 볼티모어에서 발행되는 러시아어 신문 **Kaskad**의 소유주. *볼티모어 선*

“미국에 올 때 당신은 돈을 벌고 성공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온다. 사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해 동안 이곳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매릴랜드의 고급 푸드체인 발두치의 물류디렉터 어니스토 디아즈. *워싱턴포스트*

“우리는 이슬람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즉 고향은 우리 손자들이 자랄 곳이지 우리 조부가 묻힌 곳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슬람대외관계협의회 총재 살람 알-마라야티. *새크라멘토 비*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잡을 좋은 기회가 있다.” 수자나 호타즈, 월마트에서 일하는 알바니아 출신 이민자. *캔자스시티 스타*

“공통의 목표를 가진 이민자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내 아메리칸 드림의 하나다.” 실베리오 무그, 필리핀계 이민자로서 세계무역센터 꼭대기에 있던 레스토랑 ‘윈도우 온 더 월드’의 직원 중 9/11 테러 생존자들이 결성한 조합의 50명 소유주 중 한 사람. *뉴욕타임즈*

“일자리가 많고, 학교제도가 좋으며, 상점을 열고 교육을 받고 영어를 배울 기회가 많다.” 라히마 폴자레빅, 보스니아계 이민자. *캔자스시티 스타*

“이민자로서 여기에 오는 것은 운에 맡기고 한 번 해 보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도 결국 똑같다.” 미셸 카주르, 버지니아 히스패닉 상공회의소 대표. *워싱턴포스트*

미국의 유명인들이 남긴 명언

마야 엘젤루: “이제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다양성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에밀리 디킨슨: “행운은 우연이 아니라 노력이다. 운명의 값비싼 미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당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W.E.B. 두보이스: “내일도 아니고, 더 편리한 어떤 계절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 인정된 시간이다. 우리가 가장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오늘이지 미래의 어느 날이나 어느 해가 아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 “가장 어려운 것은 행동한다는 결정이며 나머지는 단지 끈기일 뿐이다. 두려움은 종이 호랑이다. 당신이 결심한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바꾸고 통제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절차, 그 과정 자체가 그 대가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중요한 것은 의문을 품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열정과 끈기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

랄프 왈도 에머슨: “모든 사람의 교육과정에는 선망은 무지이고, 모방은 자살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광활한 우주에 좋은 것이 가득하지만 그에게 경작하라고 주어진 땅덩이로 뿌려진 땀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영양 많은 옥수수도 그에게 올 수 없다는 신념에 도달하는 때가 있다.”

빌 게이츠: “성공을 통해 나는 큰 부를 얻었다. 그리고 큰 부와 함께 사회에 환원해야 할 책임, 그런 자원이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도록 할 큰 책임이 따른다.”

랭스톤 휴스: “꿈을 놓치지 말라. 꿈이 죽은 인생은 날개가 부러져 날 수 없는 새다. 나는 살면서 정말로 가고 싶어 한다면 원하는 거의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개리슨 케일로: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비미국적인 말이 ‘그런 말은 하면 안돼’라고 생각한다.”

에드워드 R. 머로우: “설득력을 갖기 위해 우리는 믿을 만해야 한다. 믿을 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뢰할 만해야 한다. 신뢰할 만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다.”

마크 트웨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그 아이디어가 성공하기 전에는 괴짜다.”

오프라 윈프리: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사람들로만 주변을 채워라.”

인터넷 자료

미국에 관한 웹사이트

일반 자료

Celebrating America's Freedoms

<http://www1.va.gov/opal/feature/celebrate/>

미국 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가장 사랑 받는 미국의 관습과 국가적 상징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충성서약, 국기에 대한 예의, 흰머리독수리, 예포(禮砲), 기타 애국심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독립기념일, 국기 제정 기념일, 현충일, 재향군인의 날 등 국경일에 대해 조사하거나 국경일에 적합한 활동을 계획할 때 유용한 사이트다.

CIA 세계통계서: 미국(World Fact Book: United States)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us.html>

미국의 지리, 국민, 정부, 경제, 통신, 수송, 국방에 대한 정보의 공식 제공처.

e저널 USA(eJournal USA)

<http://usinfo.state.gov/pub/ejournalusa.html>

미국 국무부 국제정보프로그램국에서 발행하는 전자 저널의 최신판과 과거 발행판을 볼 수 있다. 이 저널들은 경제와 무역, 국제 안보, 글로벌 이슈, 민주주의, 인권, 미국 사회와 가치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인포메이션 USA(Information USA)

<http://usinfo.state.gov/usainfouse/>

미국의 사회, 정치적 과정, 공식 정책, 문화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외국 독자들을 위해 국무부 국제정보프로그램국에서 정리한 자료가 제공된다. ‘미국에 관한 사실’, ‘경제와 교역’, ‘언론’, ‘교육’, ‘예술과 문화’, ‘정부와 정치’, ‘법과 조약’, ‘사회와 가치’, ‘과학기술’, ‘지리’, ‘여행’ 등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http://www.loc.gov/>

‘세계 최대의 도서관’인 미국 의회도서관 홈페이지로 8백만 건의 온라인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자료목록, 연구 툴과 서비스, 기타 검색도구 등을 통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 음반, 사진, 지도,

필사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지는 자료 목록에서 다수의 유용한 자료를 볼 수 있는 링크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스미스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ion)

<http://www.si.edu/>

흔히 ‘미국의 다락방’으로 일컬어지는 스미스소니언은 여러 개의 역사·과학·기술 박물관과 미술관, 국립동물원, 다수 연구설비와 도서관,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 행사, 연구, 회원 정보로 링크가 제공된다.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아라비아어 등 다수 언어로 이용 안내가 서비스되고 있다.

국제정보프로그램국 간행물(Publications from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http://usinfo.state.gov/products/pubs>

미국 국무부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왕성한 출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 관하여(About America)’ 시리즈(최근 기사: ‘에드워드 R. 머로우: 최고의 저널리즘’)에서 광범위한 ‘아웃라인(Outline)’ 시리즈(‘미국 역사의 아웃라인’, ‘미국 법률 제도의 아웃라인’ 등)에 이르기까지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출간물은 미국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전세계 고교생 및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읽어보아야 할 자료다.

미국 국무부: 국제정보프로그램(U.S.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http://usinfo.state.gov/>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적 외교 자료를 제작, 개발, 배포하는” 국무부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의 웹사이트로서 지역별, 주제별로 분류된 출간물, 최근 기사(Washington File), 기타 자료를 검색 기능과 함께 찾아 볼 수 있다. 국제 안보, 무역과 경제, 글로벌 이슈, 민주주의, 인권, 역사, 지리와 인구, 삶과 문화 등 주제별 뉴스가 제공되며 자료의 상당 수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라비아어, 페르시아어, 중국어로도 번역된다.

지리

50개 주(50 States)

<http://www.50states.com/>

각 주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주와 수도의 지도, 주기(州旗), 상징, 인구, 지역번호, 우편번호, 주요 도시 정보, 기타 무수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시티데이터닷컴(City-Data.com)

<http://www.city-data.com>

미국의 도시에 대해 다룬 사이트로 도시 개요, 사진, 지도, 통계, 지리 정보, 통계, 기타 자료가 제공된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 신규 주택이 가장 많은 도시, 여성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통근시간이 가장 짧은 도시, 주민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대 도시의 순위가 올라와 있다.

콜럼비아북미지명사전(Columbia Gazetteer of North America)

<http://www.bartleby.com/69>

Bartleby.com에서 제공하는 백과사전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에 위치한 5만여 건의 지명과 그 물리적 특징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간략한 표제어 정보에는 2000년판에 수록된 지역별 인구, 위도와 경도, 역사적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50개 주의 지리(Geography of the 50 States)

http://www.netstate.com/state_geography.htm

기본 지리 정보, 주의 상징, 해당 주에 거주하는 유명인사, 노래, 역사, 정부, 신문, 게시판, 다양한 링크 등 각 주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미국국가지도책(National Atlas of the United States)

<http://nationalatlas.gov/>

미국 내무부에서 제공하는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다양한 물리적 특징을 보여주는 '맞춤형'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인구, 농업, 기후, 환경, 지질, 기타 지리 정보 등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검색된다.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http://www.nws.noaa.gov/>

국가해양대기청(NOAA) 산하 기관인 기상청의 사이트로 미국의 기후에 대한 예보, 지도, 여행 경고,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지질조사소(U.S. Geological Survey)

<http://geography.usgs.gov/>

"미국 지질조사소(USGS)의 지질학자들은 국토의 변화를 감시, 분석하고, 인간과 땅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며, 공적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학 정보를 사회에 제공한다." 지질조사소는 자원의 관리 및 계획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2천여 단체와 손잡고 이 사이트에 다양한 지리 정보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

미국 대통령(American Presidents)

<http://www.americanpresident.org/>

버지니아대학교 밀러공공문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두 가지 시각에서 미국의 대통령을 조명한다('Presidency in History'와 'President in Action').

의회 명부(Congressional Directory)

<http://www.gpoaccess.gov/cdirectory/index.html>

미국 의회의 공식 디렉터리로 상원 및 하원의원 각각의 약력과 위원회 소속 현황, 보좌진 등 추가 정보도 볼 수 있다. 기타 연방부처의 관료, 주지사, 외교관, 기자들도 소개된다. 제 104차 의회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미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http://www.gpoaccess.gov/constitution/>

"미국 헌법은 미국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법률을 구성한다. 헌법은 또한 연방정부의 3개 주요 부문과 그 관할권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의회조사실(CR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1992년부터 헌법 조문, 분석, 해석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강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문서(Core Documents of U.S. Democracy)

<http://www.gpoaccess.gov/coredocs.html>

"우리의 민주적 사회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연방정부 문서"를 기초 문서, 의회, 대통령, 사법, 규제, 인구통계, 경제, 기타 부문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미국 정부출판국(GPO)에서 선별, 인증한다.

FirstGov.gov

<http://www.firstgov.gov/>

미국 총무처(GSA)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정부의 모든 정보로 통하는 미국의 공식 관문”이다. “강력한 검색 엔진과 사용자 중심의 주제별 링크가 지속적으로 보강, 제공됨으로써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트에서 전세계 국가 사이트에 이르는 수백만 웹 페이지에 연결해 준다. 스페인어로도 서비스된다.

정부의 가장 위대한 50대 성과(Government's 50 Greatest Endeavors)

<http://www.brook.edu/GS/CPS/50ge/50greatest.htm>

미국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는 브루킹스연구소 공공서비스센터가 21세기 초 미국 정부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정리했다.

GPO 액세스(GPO Access)

<http://www.gpoaccess.gov/>

정부출판국(GPO)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서 기관 간행물에서 주간 대통령문서 편찬(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에 이르는 연방정부 3개 부문의 공식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의회도서관: 온라인 법률 가이드(Library of Congress: Guide to Law Online)

<http://www.loc.gov/law/guide/us.html>

미국 의회법률도서관에서 편찬한 자료로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부와 법률 관련 정보원을 주석과 함께 안내”한다. 헌법, 연방정부의 행정·입법·사법부 법률, 주 법률 등 권위 있는 법률 정보 사이트로 링크가 제공된다.

정치학 자료(Political Science Resources)

<http://www.lib.umich.edu/govdocs/psusp.html>

미시간대학교 도서관 문서 센터(Library Documents Center)에서 제공하는 광범위한 미국 정부 관련 자료로서 종합 사이트, 블로그, 만화 등 유형별 분류와 선거, 연방정부, 로비단체, 정치광고 등 주제별 분류로 정리되어 있다.

정치 네비게이터(Politics Navigator)

http://www.nytimes.com/ref/politics/POLI_NAVI.html

뉴욕타임즈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정치 사이트에 대한 선별적 가이드.” 정당, 여론조사, 정부 데이터, 정치적 이슈, 언론매체, 논평, 기타 정보로의 링크 목록이 제공된다.

주 및 지방 정부 웹사이트(State and Local Government on the Net)

<http://www.statelocalgov.net/index.cfm>

검색과 브라우징이 가능한 주 정부 및 지방정부 인터넷 디렉토리로서 “수천 개의 주 기관과 시/카운티 정부의 웹사이트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Stateline.org: 주별 정치와 정책뉴스(Politics and Policy News, State by State)

<http://www.stateline.org/>

당초 퓨 자선신탁(Pew Charitable Trust)의 자금 지원으로 기자들을 위해 제작된 사이트로서 “각 주의 정책 혁신과 동향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언과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헬스케어, 과세 및 예산 정책, 환경, 복지 등 주 차원의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주별 동향과 정책에 대해 Stateline.org가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 ‘미국의 주 2006’은 신청할 경우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미국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ttp://www.supremecourtus.gov>

대법원의 공식 사이트로서 대법원의 역사와 기능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담겨 있다. 구두변론, 판결, 안내, 각종 결정과 의견 뿐 아니라 이용 안내와 기타 공개된 정보도 제공된다.

토마스: 인터넷의 입법 정보(THOMAS: Legislativ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ttp://thomas.loc.gov/>

1995년부터 의회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온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법안·법률·결의안의 전문, 의사록 및 발의된 법률안, 의회 기록, 일정표, 위원회 정보, 대통령 지명자 정보, 조약, 기타 정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973년 이후의 자료도 일부 추가되었다.

미국 정부 편람(U.S. Government Manual)

<http://www.gpoaccess.gov/gmanual/index.html>

연방정부의 공식 안내서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산하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미국이 참여하는 준 공식기관, 국제기구,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판이 나와 있어 검색과 브라우징이 가능하다.

연방법원의 이해(Understanding the Federal Courts)

<http://www.uscourts.gov/understand02/>

“이 간행물은 연방 사법제도, 그 조직, 입법부 및 행정부와와의 관계를 소개하기 위해 미국 법원행정청에 의해 개발되었다.”

역사

AMDOCS: 미국 역사 연구를 위한 문서(Documents for the Study of American History)

<http://www.vlib.us/amdocs/>

캔자스대학교 교수가 개발한 연대순 문서 목록으로서 미국 고교생 및 대학생들의 역사 공부를 도울 수 있도록 선별된 약 400종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미국의 역사적 문서(America's Historical Documents)

<http://www.archives.gov/historical-docs/>

“국립문서기록보관청(NARA)은 연방정부의 기록을 보존하고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사이트는 유명한 역사적 사건 관련 문서에서 좀 더 모호한 문서에 이르는 각종 연방정부의 기록을 통해 국립문서보관소 자료를 샘플로 보여준다. 국립문서기록보관청 웹사이트, 추가 문서, 온라인 전시, 자료 조사에 대한 조언과 툴, 기타 정보원 등으로 링크가 제공된다.

아메리칸 메모리: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위한 역사적 소장품(American Memory: Historical Collections for the National Digital Library)

<http://memory.loc.gov/ammem/>

“아메리칸 메모리’는 인터넷을 통해 미국의 경험을 기록한 문서와 발언, 녹음, 스틸사진과 동영상, 인쇄물, 지도, 음악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의회도서관 및 기타 기관의 소장품에서 취합한 이들 자료는 “계속해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 사람, 장소, 사상을 연대순으로 정리”한다. 예컨대 의회도서관 학습용 사이트 ‘Learning Page’의 ‘American Memory Timeline’과 ‘Today in History’를 참고하기 바란다.

예일 법과대학 아발론 프로젝트: 법률, 역사, 정부 분야 문서

<http://www.yale.edu/lawweb/avalon/avalon.htm>

“아발론 프로젝트는 법률, 역사, 경제, 정치, 외교, 정부 분야의 주된 원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목에 대한 이해

와 탐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외부의 링크가 추가되었다. 저자와 제목, 주제나 사건별 검색 기능을 갖춘 데이터베이스로 3,500종이 넘는 전문(全文) 문서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미국 역사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전기(Biography of America)

<http://www.learner.org/biographyofamerica/>

비디오로 제작된 미국의 역사. 26개 부분으로 나뉘어 “해당 주제나 시기와 관련된 쌍방향적인 기능... 해당 기간의 주요 사건의 목록, 해당 기간에 관련된 지도, 비디오 해설 원고, 그리고 주석이 달린 웹 링크 ‘웹로그라피(Webography)’”를 제공한다.

미국 남부의 기록(Documenting the American South)

<http://docsouth.unc.edu/>

채플힐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대학도서관이 후원한 자료 모음으로 “남부의 역사, 문학, 문화와 관련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파일에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저자, 제목, 주제, 위치별 검색이 가능하다.

역사 - 북미(History - North America)

http://www.libraries.rutgers.edu/rull/rr_gateway/research_guides/history_us/history_us.shtml

럿거스대학교 도서관의 서지학자들이 정리한 역사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서. 인터넷 자료 링크, 온라인 색인과 데이터베이스, 문헌목록, 미국 역사에 대한 풍부한 마이크로필름 자료, 타 도서관의 장서목록, 기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럿거스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

History Matters: 웹에서 보는 미국 역사 강좌(The U.S. Survey Course on the Web)

<http://historymatters.gmu.edu/>

고교 및 대학교에서 미국 역사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사이트는 인터넷 자료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며 독특한 교수 자료, 1인칭으로 서술된 주요 문서, 역사적 증거 분석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자료들은... 증거의 분석과 해석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이 사이트는 뉴욕시립대학교(CUNY)의 미국사회역사프로젝트와 조지메이슨 대학교 역사뉴미디어센터에서 제작했으며 “미국 역사와 사회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한 웹사이트들”을 주석과 함께 안내하는 등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역사의 개요(Outline of U.S. History)

<http://usinfo.state.gov/products/pubs/historyotln/index.htm>
미국이 오늘에 이른 과정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자료. 국무부 국제정보프로그램국에서 발행했으며 현재는 2005년 11월 알론조 햄비 교수가 전면 개정, 갱신한 신판이 제공되고 있다.

인구와 통계

다양성 문헌목록(Diversity Bibliography)

http://poynter.org/content/content_view.asp?id=1187
기자과 미디어 리더를 위한 비영리조직 포인터연구소(Poynter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 목록으로 2005년 초 갱신되었다. 관련 단체와 보고서를 포함한 온라인 자료가 링크되어 있으며 다양성과 미디어에 대한 서적도 소개된다.

민족적, 다문화적 역사(Ethnic & Multicultural History)

<http://memory.loc.gov/learn/start/inres/ushist/ethnic.html>
의회도서관 'Learning Page'에서 제공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미국 내 민족적 다양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40개 가까운 사이트가 해설과 함께 링크되어 있다.

지역의 유산: 지역사회 뿌리 찾기(Local Legacies: Celebrating Community Roots)

<http://www.loc.gov/folklife/roots>
의회도서관 서민생활센터(Folklife Center)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거의 1,300개의 지역유산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사진, 보고서, 음성 및 화상 정보, 신문 스크랩, 포스터, 기타 자료가 올려져 있다.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을 대변하는 창의적인 예술·공예·관습, 각종 축제와 가장행렬 등 대표적인 행사, 지역과 국가의 역사적 행사를 유지하는 지역사회의 모습, 지역사회 삶의 규정하는 직종" 등을 보여준다.

다원주의 프로젝트(Pluralism Project)

<http://www.pluralism.org/>
'다원주의 프로젝트: 미국의 세계 종교'는 "아시아와 중동의 공동체와 종교적 전통"을 중심으로 "미국 내 새로운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10여 년에 걸친 연구사업이다. 전문적인 기사와 연구 보고서, 간행물, 검색이 가능한 종교적 다양성 관련 뉴스 데이터베이스 등이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Resources by Tradition'에서는 아프리카-카리브해에서 조로아스터교에 이르는 종교

적 전통에 대해 종교별 중심지의 목록과 개요, 뉴스, 링크, 통계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인구와 다양성(Population and Diversity)

http://usinfo.state.gov/scv/history_geography_and_population/population_and_diversity.html

미국 국무부 국제정보프로그램국 내 사회와 가치(Society and Values)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최근 기사는 물론 관련 단체, 정부기관, 보고서, 통계, 기타 자료로의 링크를 제공한다. 'Issue in Depth'에서는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조명한다.

인구조회뷰로(Population Reference Bureau)

<http://www.prb.org>
인구조회뷰로는 미국과 전세계의 인구 동향과 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도움이 될 만한 간행물로는 계간 Population Bulletin, the Population Handbook, Reports on America, 최근 시작된 The American People 시리즈 등이 있다. 용어집과 데이터도 제공되며 검색과 브라우징을 지원한다.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주 및 카운티 간략정보(State and County QuickFacts)

<http://quickfacts.census.gov/qfd/>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국가, 주, 카운티 차원에서 "사람, 기업, 지역에 대한 사실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다.

스테이트마스터닷컴(StateMaster.com)

<http://www.statemaster.com/index.php>
미국 인구조사국, 연방수사국(FBI),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등 다양한 기관을 위해 정리된 통계를 학생, 교사, 도서관 사서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포맷으로 종합, 정리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미국의 주들에 대한 폭 넓은 데이터를 조사, 비교할 수 있다.

통계개요(Statistical Abstract)

<http://www.census.gov/statab/www/>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제작하는 '국가자료집(National Data Book)'으로서 미국 내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통계와 선별된 국제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다. 인구조사국, 기타 연방기관, 민간기구에서 제공하는 다른 데이터 제공처도 안내한다.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

미국 인구통계 데이터의 주 공급처인 이 사이트는 인구, 주택, 기업 및 제조 활동, 국제무역, 농축산업, 주 및 지방정부와 관련된 통계를 제공한다. 흥미로운 기능으로는 인구 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Pop Clock, 멀티미디어 서비스, 주제별로 분류된 Facts for Features, the American FactFinder 등이 있다. 지도와 기타 지도제작 자료도 볼 수 있다.

여행

아메리카 바이웨이즈(America's Byways)

<http://www.byways.org/>

미국 교통부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산하 국가도로보존프로그램(National Scenic Byways Program)은 주 또는 연방 차원에서 지정된 1,500개 가까운 도로보존 사업을 인식, 보존,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여행 아이디어, 여행계획 툴, 여행 정보, 링크를 이용할 수 있다.

애리조나 하이웨이 매거진(Arizona Highways Magazine)

<http://www.arizonahighways.com/>

80년 동안 애리조나 주 교통부에서 발행해 온 잡지의 온라인 버전으로 행사, 여행, 하이킹, 천연동식물에 대한 기사와 독점 기사가 게재된다. 사진 섹션에서는 버추얼 투어와 “미국 최고의 사진작가”들이 촬영한 풀 컬러 사진이 담긴 포토에세이를 볼 수 있다. 링크와 지도도 제공되며, 50개 주에서는 여행객들을 위해 저마다 이 같은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다.

디스커버아워타운닷컴(DiscoverOurTown.com)

<http://www.discoverourtown.com/>

미국 전역에서 선별된 도시에 대해 관광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의 목록과 링크가 제공된다. 관광 명소, 박물관, 숙박시설, 식당, 특산물 쇼핑, 오락 등 정보가 실려 있다. 정보를 보려면 지도에 클릭하거나 주를 선택하면 된다.

맵퀘스트(MapQuest)

<http://www.mapquest.com/>

MapQuest는 미국 전역에 걸쳐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여러 온라인 서비스 중 하나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길, 지도, 거리 뿐 아니라 도시 통계, 호텔, 식당, 관광 명소, 날씨 등 여행 계획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된다.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

<http://www.nps.gov/>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미국의 모든 국립공원으로 링크가 제공되며 주제별(유적지, 간헐천, 산 등), 위치별 검색이 가능하다. 공원 내 자연, 역사, 문화적 자원 역시 소개된다.

랜드 맥널리(Rand McNally)

<http://www.randmcnally.com/>

미국과 캐나다의 자세한 길찾기 정보와 함께 무료로 지도를 제공하며 여행 루트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되는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가 돋보인다. 호텔 링크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다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인쇄본 지도를 참고해야 하지만 여행계획과 주소는 무료 가입으로도 저장할 수 있다.

레크레이션(Recreation.gov)

<http://www.recreation.gov/>

이 사이트는 연방정부 소유이거나 연방정부와 제휴되어 있는 수천 개의 유원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연락처와 날씨 정보, 찾아가는 길, 링크, 할 수 있는 여가 활동(하이킹, 낚시, 보트타기, 문화활동, 캠핑)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키워드, 사이트명, 주, 활동별로 검색할 수 있다. 유원지의 위치를 파악하면 그 지역의 사진을 보거나 지도를 만들 수 있다.

미국 도로여행(Road Trip USA)

<http://www.roadtripusa.com/>

“도로 번호나 이름을 따라가면 48,000km 이상의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자동차 여행을 할 수 있다. 필치면 9m가 넘는 지도 상에서 기이한 싸구려 물건, 지역의 역사, 맛있는 애플파이 식당을 유쾌한 상세 설명과 함께 찾을 수 있다.” 저자 제이미 켄슨이 묘사한 11개 루트 외에도 블로그, 컨테스트, 링크, 매월 다른 지역을 탐색하는 운전자 연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로드사이드 피크(Roadside Peek)

<http://www.roadsidepeek.com/>

‘티키’, ‘로드사이드 버나쿨라(Roadside vernacular)’, 네온사인 등 스타일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세기 중반 노변 건축을 사진을 통해 둘러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 루트 66 상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별도 섹션에서 다뤄진다. 최신 뉴스와 링크는 물론 커피숍, 식당, 드라이브인 극장, 볼링장, 모텔, 자동차 등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씨 아메리카(See America)

<http://www.seeamerica.org/>

미국관광산업협회(TIA)가 다른 관광산업 단체들과 손잡고 개발한 온라인 포털로 “1만 개가 넘는 호텔, 항공사, 관광 명소, 주 및 지역 관광청으로의 링크”와 기타 자료를 제공한다.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일본어로도 서비스된다.

뉴스디렉토리: 트래블 플래너(NewsDirectory: Travel Planner)

<http://www.newsdirectory.com/travel.php?c=na&co=USA>

50개 주와 콜롬비아특별구의 관광청(Visitors and Convention Bureaus)으로 연결된다. 공항, 호텔, 렌터카, 항공사로의 링크도 이용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 영사국(Bureau of Consular Affairs)

http://travel.state.gov/visa/temp/temp_1305.html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미국을 임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비자 관련 세부 사항도 볼 수 있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 뉴스: 미국 방문하기(Voice of America News: Visiting the USA)

<http://www.voanews.com/english/travelusa.cfm/>

VOA의 철저한 여행 계획 기능이 방문 계획, 도착할 때 예상해야 할 것, 공원·오락·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로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드롭다운 메뉴나 클릭할 수 있는 50개 주 지도를 통해 관광객을 위한 각 주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는 위에 열거된 타 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터넷 링크는 2006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수 언어로 제공되는 미국에 관한 월간지

5개 주제별 온라인 저널:

Economic Perspectives
Foreign Policy Agenda
Global Issues
Issues of Democracy
Society & Values



게재된 기사 목록은 다음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usinfo.state.gov/pub/ejournalusa.html>